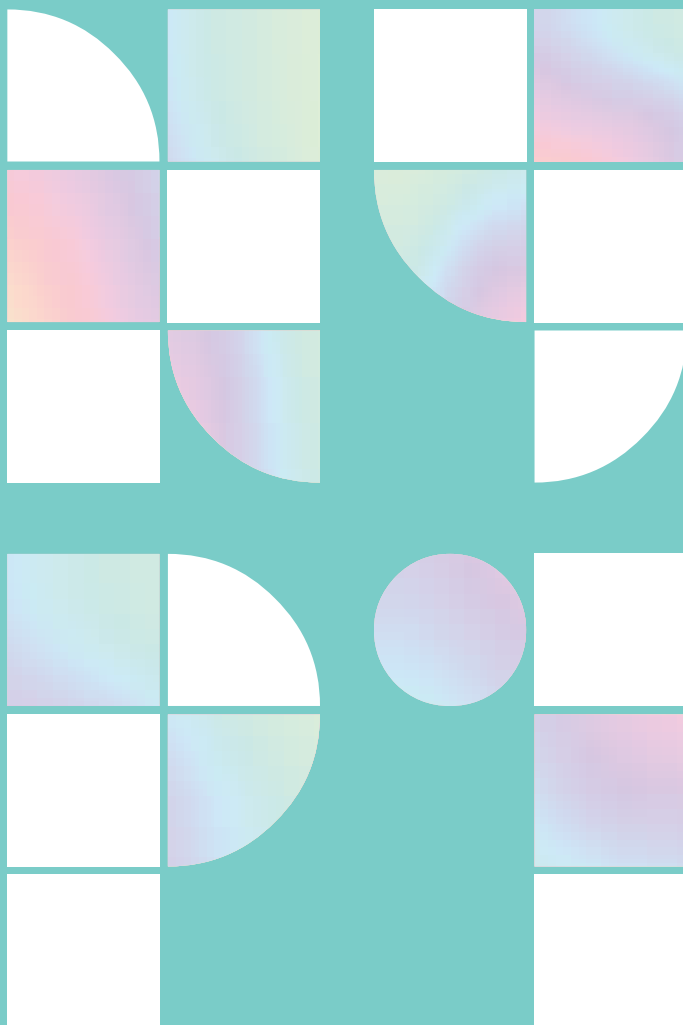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홍성효



연구보고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저 자 홍성효

연구진 연구책임자_홍성효(공주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를 끝마칠 즈음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무색하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도 코로나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 등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도 벅찬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맞아 복합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으로 질주하는 미래라는 자동차 바퀴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른들에게도 혼란스러운데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마스크를 쓰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 화면 넘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던 이들에게 학교는, 가족은,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이들의 삶을 위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구는 데이터의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비정형 민원 빅데이터,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 청소년의 생각과 욕구, 기존의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는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스마트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 도출 방법과 외국, 국제기구 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료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연구진, 집필진, 자문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정책을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 모두를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서정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미래 정책의 핵심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시계열적·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연령대, 성, 거주지역,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 등에 의한 청소년 집단 간 차이에 대해 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들이 있어왔는지에 대해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제시한다.

3. 주요결과

- 청소년 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 자살 충동의 하락, 주관적 건강 평가의 상승,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의 감소가 이뤄져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최근에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였다. 비록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감도 함께 증가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 가정생활에서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또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근에 하락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우관계 만족도와 선생님이나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은 하락하였다. 여가생활에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며 운동시간은 감소하였다. 독서활동은 감소하였으며, 주로 읽은 책도 만화나 무협지에 해당하였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역시 다소 감소하였으며, 관람의 빈도 또한 높지 않고 영화와 같은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다.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에 감소하였음에도,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여가시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가장 큰 제약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활동 경험에 있어 문화·예술부문은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며,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자기(인성)개발, 건강·보건, 환경보존 등의 부문들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단기적 변화는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의 비중이 악화의 비중보다 높을 뿐 전반적인 생활, 친구 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취업 전망 등에서 개선보다 악화의 비중이 높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 청소년의 미래 정책의제는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자율성에 기반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식사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가정 내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학교에서는 대인관계 향상 혹은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간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고 학생의 이해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의 마련과 주관적 성취감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학교의 학생 복지와 문화 관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증가는 학습효과 저하 및 선생님이나 급우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확립의 기회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
- 청소년의 여가생활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절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잠재력과 재능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이에 대한 공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청소년기 여가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체험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의무적 참여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근 조사결과는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등에서 청소년의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의 참의미를 청소년이 체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4. 정책제언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의 도출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공공데이터들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며, 자료 간 연계를 용이하도록 조사응답자인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속성변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를 통한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변수들의 시계열적 지속성 유지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시의성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둘은 상호 배반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자나 정책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합리적 타협이나 조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정책적 피드백을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도출된 정책의제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해당 의제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환류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연구보고 21-R12-2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5
II. 청소년 삶의 변화	9
1.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11
2. 가정생활의 변화	25
3.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의 변화	31
4. 여가생활의 변화	45
5.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59
6. 코로나19 이후 단기적 변화	65

Ⅲ.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	73
1. 영역별 여건과 과제	75
2. 영역별 정책의제	87
Ⅳ. 결론	91
1. 연구의 요약	93
2.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9
부 록	105

표 목차

표 I - 1	공공데이터 개요	6
표 II - 1	주관적 만족감	11
표 II - 2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2
표 II - 3	자살 충동 유무	12
표 II - 4	자살 충동 이유	13
표 II - 5	주관적 건강평가	13
표 II - 6	고민거리와 상담 대상	14
표 II - 7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17
표 II - 8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	18
표 II - 9	주관적 안녕감 : 행복감	19
표 II -10	주관적 안녕감 : 근심과 걱정	20
표 II -11	주관적 안녕감 : 우울	22
표 II -12	주관적 안녕감 : 삶에 대한 만족	23
표 II -13	주관적 안녕감 : 일에 대한 자부심	24
표 II -14	가정생활 여건의 변화	25
표 II -15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26
표 II -16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27
표 II -17	주행동 시간량(수면) : 초등학생	28
표 II -18	주행동 시간량(수면) : 중학생	28
표 II -19	주행동 시간량(수면) : 고등학생	29
표 II -20	주행동 시간량(수면) : 대학생	29
표 II -2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30

표 II-22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31
표 II-23	학교생활 여건의 변화	32
표 II-24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	34
표 II-25	대학생의 교육기회 충족도와 미충족 사유	34
표 II-26	전공과 직업 일치도	35
표 II-27	학교 교육의 효과	36
표 II-28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초등학생, 평일 ..	37
표 II-29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중학생, 평일	38
표 II-30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고등학생, 평일 ..	39
표 II-31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대학생, 평일	40
표 II-32	학교생활 만족도 : 수업시간	41
표 II-33	학교생활 만족도 : 선생님과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	42
표 II-34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의 면학 분위기	43
표 II-35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들의 의견 반영	44
표 II-36	여가 활용 만족도	45
표 II-37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46
표 II-38	주중 여가 활용(1순위)	47
표 II-39	주말 여가 활용(1순위)	49
표 II-40	여행 경험 여부와 빈도	50
표 II-41	독서 여부 및 독서권수	51
표 II-42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부와 관람횟수	52
표 II-43	평소 시간 부족의 정도	54
표 II-44	여가시간 만족도	54
표 II-45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초등학생, 평일	55
표 II-46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중학생, 평일	56
표 II-47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고등학생, 평일	56
표 II-48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대학생, 평일	57
표 II-49	지난 1주 간 운동활동 유무 및 활동시간	58
표 II-50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문화·예술, 과학·정보	59
표 II-51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모험·개척, 자원봉사	60
표 II-52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직업·진로, 자기(인성)개발	62
표 II-53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건강·보건, 환경 보존	64

표 II-54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과 가족관계 ...	65
표 II-5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66
표 II-56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68
표 II-57	코로나19 이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69
표 II-58	온라인 수업과 활동에 대한 찬성	70
표 III-1	청소년 삶의 만족 관련 선행연구 결과	82

그림 목차

그림 1-1 공공데이터별 주요 분석내용 7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러한 자료 혹은 이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의 지속으로 한 자녀 가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사회적 이슈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¹⁾ 사람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청소년관련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보고된다(OECD, 2015). 11점 척도의 조사에서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은 7.6점이나 우리나라는 6.6점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관적 행복감이 극도로 낮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업중단이나 가출 혹은 범죄 등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높으며(Kamerman et al., 2010), 초기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중요하다(Suldo et al., 2006).

1)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9~24세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미래 정책의 핵심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청소년 삶의 만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의 분석결과 및 이들의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청소년 삶의 변화 분석

코로나19는 일상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청소년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미래 정책의제 도출에 기초가 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의 변화, 가정생활, 학교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 등 청소년 삶의 전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2) 청소년 미래 정책 핵심 영역과 의제 도출

청소년의 삶은 가정, 학교, 그리고 또래집단과의 생활-즉, 문화 및 여가생활-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 일상생활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학교에서 학습활동과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래집단과의 관계, 청소년 개인의 시간 사용, 정신적·육체적 건강, 여가의 활용, 청소년 체험활동 등이 청소년 정책 의제 도출과 관련하여 주로 고찰해봐야 할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영역별 관련 연구들에서의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에서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영역별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한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연구방법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시계열적·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연령대, 성, 거주지역,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 등에 의한 청소년 집단 간 차이에 대해 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 문헌을 통해 검토한다. 즉, 청소년 삶의 변화를 공공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 삶의 만족 관련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제시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 등의 자료를 주로 이용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3년을 주기로 만 9~24세의 청소년과 주양육자를 표본 조사한다.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부모와의 활동, 가치관, 사회인식, 학습과 학교생활, 진로, 가정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자료를 이용한다.

표 1-1 공공데이터 개요

구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청	통계청
주요 조사내용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부모와의 활동, 가치관, 사회인식, 학습과 학교생활, 진로, 가정생활 등	■ 짝수해: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 홀수해: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즉, 수면, 식사를 포함하는 필수 시간,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을 포함하는 의무시간, 교제 및 참여,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기타를 포함하는 여가시간-과 응답자 특성별 시간사용
대상	만 9~24세 청소년과 주양육자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2020년 조사 기준)	12,435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 (2019년 조사 기준)
청소년 표본	5,072가구 청소년 7,170명 (2020년 조사 기준)	만 13~24세 청소년 5,049명 (2020년 조사 기준)	만 10~24세 청소년 8,394명 (2019년 조사 기준)
연도 (조사기준 시점)	2011, 2014(2014년 7월 31일), 2017(2017년 5월 31일), 2020	2017(2017년 5월 15일), 2018(2018년 5월 15일), 2019(2019년 5월 14일), 2020(2020년 5월 12일)	2014(2014년 6월 30일), 2019(2019년 10월 31일)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만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비록 매년 조사가 이뤄지나 전체 10개 분야에 대해 5개 분야씩 격년으로 조사한다. 짝수 해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분야를 조사하고, 홀수 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분야를 조사한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조사하며, 전국 약 12,000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주요 행동별 시간사용-즉, 수면, 식사를 포함하는 필수시간,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을 포함하는 의무시간, 교제 및 참여,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기타를 포함하는 여가시간-과 응답자 특성별 시간사용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자료와 2019년 자료가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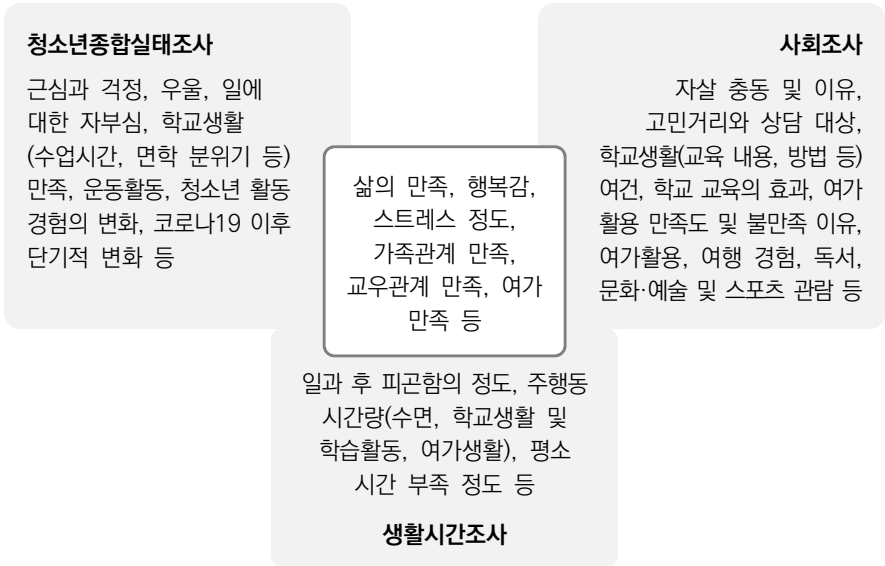


그림 1-1 공공데이터별 주요 분석내용



제2장 청소년 삶의 변화

- 1.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 2. 가정생활의 변화
- 3.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의 변화
- 4. 여가생활의 변화
- 5.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6. 코로나19 이후 단기적 변화

1.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1) 사회조사

2018년과 2020년 사이 청소년 삶에 있어 정서적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주관적 만족감은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나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은 2020년에 25.3%로 2018년(17.6%)에 비해 7.7%p 만큼 높다. 약간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이 3.0%p 하락하였으나 약간 불만족하는 경우의 비중 역시 2.8%p 하락하였다.

표 II-1 주관적 만족감

주관적 만족감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만족	25.3	17.6	7.7
약간 만족	31.7	34.7	-3.0
보통	35.5	36.9	-1.4
약간 불만족	6.4	9.2	-2.8
매우 불만족	1.2	1.8	-0.6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관적 만족감의 증가와 일관되게,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역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의 비중이 2018년 45.1%에서 2020년 34.3%로 10.8%p 감소하였으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경우의 비중이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였다.

표 II-2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_전반적인 일상생활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많이 느꼈음	2.9	2.9	0.0
느낀 편임	31.4	42.2	-10.8
느끼지 않은 편임	48.5	44.5	4.0
전혀 느끼지 않았음	17.3	10.5	6.8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일 동안의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 만족감의 증가와 스트레스 정도의 감소는 자살 충동의 감소로 나타난다. 비록 변화는 크지 않으나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8년에 4.8%에서 2020년에 4.5%로 0.3%p 하락하였다.

표 II-3 자살 충동 유무

자살에 대한 충동	2020년	2018년	변화
있음	4.5	4.8	-0.3
없음	95.5	95.2	0.3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

자살 충동 이유로는 질환이나 장애(5.6%p), 외로움(5.4%p), 가정불화(1.1%p), 친구나 동료와의 불화 혹은 따돌림(0.3%p)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2.4%p), 이성과의 원만치 않은 관계(2.0%p), 직장 문제(3.7%p), 학교 성적이나

진학 문제(2.8%p)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외로움에 의한 자살 충동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교우나 친구와의 교류가 적어짐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표 II-4 자살 충동 이유

자살 충동 이유	2020년	2018년	변화
경제적 어려움	15.9	18.2	-2.4
이성과의 원만치 않은 관계	5.8	7.8	-2.0
질환이나 장애	14.9	9.3	5.6
직장 문제	8.6	12.3	-3.7
외로움	18.5	13.2	5.4
가정불화	10.8	9.8	1.1
학교 성적이나 진학	18.4	21.2	-2.8
친구나 동료와의 불화, 따돌림	6.0	5.8	0.3
그 외	0.9	2.5	-1.6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매우 좋음의 비중은 23.0%에서 30.4%로 7.4%p 증가하였으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9.0%에서 45.4%로 3.6%p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5 주관적 건강평가

주관적 건강평가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좋음	30.4	23.0	7.4
좋은 편임	45.4	49.0	-3.6
보통	20.8	24.4	-3.6
나쁜 편임	3.2	3.4	-0.3
매우 나쁨	0.3	0.2	0.1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청소년이 주로 고민하는 문제로는 2020년의 경우 공부(성적, 적성 등)가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이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고민거리 모두 연도 간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에게 있어 최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직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외모,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용돈 부족, 가계 경제의 어려움(학비 납부 등)이 주요한 고민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2018년과 2020년 간 비교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의 비중이 특히 크게 증가-5.4%에서 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6 고민거리와 상담 대상

	고민거리와 상담 대상	2020년	2018년	변화
고민거리	외모	10.2	10.9	-0.7
	신체적·정신적 건강	8.2	5.4	2.8
	가정환경(부모 불화 등)	1.9	1.8	0.1
	가계 경제의 어려움(학비 납부 등)	4.4	4.8	-0.4
	용돈 부족	4.5	4.9	-0.4
	공부(성적, 적성 등)	29.7	29.6	0.1
	직업(직업 선택, 보수 등)	28.1	30.2	-2.1
	친구(우정)	1.9	2.5	-0.6
	이성 교제(성(性)문제 포함)	0.7	1.8	-1.1
	학교·학원 폭력	0.2	0.3	-0.1
	흡연, 음주	0.2	0.3	-0.1
	인터넷 중독(채팅, 게임 등)	1.3	0.7	0.6
	기타	0.3	0.6	-0.4
	고민 없음	8.5	6.4	2.1
상담 대상	아버지	4.2	4.1	0.1
	어머니	23.0	23.9	-0.9
	형제자매	6.1	5.1	1.0
	친구, 동료	43.4	49.1	-5.7

고민거리와 상담 대상	2020년	2018년	변화
상담 대상 선후배	0.8	1.5	-0.7
스승(교사, 교수)	1.0	1.5	-0.5
청소년 전문 상담가	0.6	0.5	0.1
인터넷(2020)/성직자(2018)	1.4	13.8	-12.4
스스로 해결	0.3	0.6	-0.3
기타	19.1	0.0	19.1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한편, 이러한 고민을 상담하는 주요 대상으로는 친구나 동료, 어머니의 비중이 두 시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제까지 사회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전후(2018년과 2020년)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²⁾ 하지만, 이러한 시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을 2020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과 매칭한 후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다. 방법론으로는 최근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에 의하며, 매칭을 위한 이항로짓모형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

$$y_j = \alpha + X_j\beta + \epsilon_j \quad (1)$$

여기서, y_j 는 청소년 j 가 2020년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1, 2018년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X_j 는 청소년 j 의 속성을 포함하는 매트릭스로서,

2) 2018년 사회조사는 2018년 5월 15일 기준이고 2020년 사회조사는 2020년 5월 12일 기준이기 때문에 두 조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등에 관해 물으며, 이 경우에는 2020년 조사 역시 부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기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다.

연령, 성, 도시(읍면동 가운데 동지역) 거주 여부,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세대 유형,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광역시도)을 포함한다.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에 해당한다. 식 (1)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는 부록의 표 A4에 제시되며, 2018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5,097명)에 비해 2020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5,049명) 일수록 연령이 높고, 읍이나 면에 거주하며, 2세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성향점수에 의해 2018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을 2020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과 매칭하며, 매칭과정에서 복수의 매칭을 허용한다. 매칭을 통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코로나19 전후 시점 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만족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평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살 충동 역시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으나 그 수치가 낮아져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의 비중 변화에 의한 결과와 대체로 일관된다.

변수	매칭 여부	2020년	2018년	차이	t-값
주관적 만족감	부	3.7	3.6	0.1	7.1
	여		3.6	0.1	4.7
전반적인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부	2.8	2.6	0.1	11.6
	여		2.6	0.1	8.6
자살 충동	부	0.1	0.1	-0.0	-1.7
	여		0.1	-0.0	-1.8
주관적 건강평가	부	4.1	3.9	0.1	7.0
	여		3.9	0.1	5.3

주 : 주관적 만족감은 조사 1~5점의 5점 척도로 1이 매우 만족, 5가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나타냄. 스트레스의 정도는 1~4점의 4점 척도로 1이 매우 많이 느낌, 4가 전혀 느끼지 않음을 나타냄. 자살 충동은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되었음. 주관적 건강평가는 조사에서 1~5점의 5점 척도로 1이 매우 좋음, 5가 매우 나쁨을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음을 나타냄

2) 생활시간조사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2019년에 매우 만족 14.1%, 약간 만족 33.0%, 보통 41.8%, 약간 불만족 12.2%, 매우 불만족 1.9%로, 이는 2014년의 해당 수치들에 비해 매우 만족은 2.6%p, 약간 만족은 1.9%p 상승하였다. 비록 시점은 다소 다르지만, 사회조사에서 보다 최근에 주관적 만족감이 상승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령기별로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2019년에 초등학생 66.6%, 중학생 51.0%, 고등학생 43.6%, 대학(원)생 47.6%로, 이는 2014년에 비해 모든 학교급에서 상승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만족하는 비중은 2014년에 각각 45.4%와 38.5%에서 2019년에 5.6%p와 5.1%p만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7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2019년	2014년	변화
전체	매우 만족	14.1	11.5	2.6
	약간 만족	33.0	31.1	1.9
	보통	38.8	41.8	-3.0
	약간 불만족	12.2	13.8	-1.6
	매우 불만족	1.9	1.8	0.1
만족하는 비중	초등학생	66.6	62.5	4.1
	중학생	51.0	45.4	5.6
	고등학생	43.6	38.5	5.1
	대학(원)생	47.6	43.1	4.5
	졸업/수료/중퇴	34.2	28.5	5.7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의해 학교급을 구분하였음

표 II-8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느끼는 피곤함		2019년	2014년	변화
전체	매우 피곤함	23.1	22.2	0.9
	조금 피곤함	50.9	54.7	-3.8
	거의 피곤하지 않음	22.0	20.1	1.9
	전혀 피곤하지 않음	4.0	3.0	1.0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	초등학생	56.6	58.5	-1.9
	중학생	77.7	78.1	-0.4
	고등학생	79.8	80.6	-0.8
	대학(원)생	75.2	78.6	-3.4
	졸업/수료/중퇴	77.9	84.0	-6.1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의해 학교급을 구분하였음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에서 매우 피곤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4년에 22.2%에서 2019년에 23.1%로 0.9%p 상승하였다. 하지만, 조금 피곤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해당 기간 54.7%에서 50.9%로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피곤함의 정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 별로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은 초등학생 56.6%, 중학생 77.7%, 고등학생 79.8%, 대학(원)생 75.2%로 나타난다. 2014년과 비교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3.4%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을 나타낸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단지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OECD에서 권고하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며, 이는 행복감, 근심과 걱정, 우울, 삶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자부심을 포함한다.

행복감과 관련하여,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의 비중은 2011년 81.4%, 2014년 86.4%, 2017년 81.7%, 2020년 84.0%에 해당한다.³⁾ 2017년과 2020년 두 시점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만 19~24세에서 비교적 작은 폭의 상승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보다 큰 상승폭을 나타낸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농산어촌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경우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초졸 이하 양육자의 청소년의 행복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9 주관적 안녕감 : 행복감

		2020년		2017년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84.0	7.0	81.7	7.1
연령	만 9~12세	91.0	7.4	88.2	7.6
	만 13~18세	83.9	7.0	79.7	7.1
	만 19~24세	80.9	6.8	80.4	6.9
성	남	82.8	7.0	81.6	7.1
	여	85.4	7.1	81.5	7.1
지역규모	대도시	88.3	7.2	83.5	7.2
	중소도시	81.0	6.8	79.2	7.0
	농산어촌	80.8	7.0	82.4	7.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4.9	6.7	70.6	6.7
	100~200만원 미만	72.6	6.7	72.1	6.8
	200~300만원 미만	77.7	6.8	75.7	7.0
	300~400만원 미만	82.7	7.0	82.6	7.2

3) 2011년과 2014년의 경우 1~4점의 4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며, 2017년과 2020년의 경우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6점 이상의 비중을 나타낸다.

		2020년		2017년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400~500만원 미만	84.1	7.0	81.1	7.1
	500~600만원 미만	84.5	7.0	84.8	7.2
	600만원 이상	88.2	7.2	86.2	7.2
주양육자	초졸 이하	58.3	6.2	71.5	6.7
학력	중졸	64.8	6.3	70.4	6.7
	고졸	83.9	7.0	81.5	7.1
	대졸 이상	85.0	7.0	82.5	7.2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문항에 대한 응답은 0~10점의 11점 척도이며, 비중은 6~10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근심과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의 비중은 2017년 67.2%에서 2020년 65.1%로 하락하여, 행복감이 증가함과 동시에 근심과 걱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 9~12세(2017년 79.6%에서 2020년 75.4%로 4.2%p 하락), 농산어촌 거주, 저학력의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서 근심과 걱정의 증가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표 II-10 주관적 안녕감 : 근심과 걱정

		2020년		2017년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65.1	3.5	67.2	3.2
연령	만 9~12세	75.4	2.9	79.6	2.4
	만 13~18세	66.8	3.5	65.8	3.3
	만 19~24세	59.1	3.9	63.0	3.6
성	남	65.6	3.5	68.4	3.2
	여	64.5	3.5	66.0	3.3
지역규모	대도시	71.0	3.2	72.1	3.0
	중소도시	62.1	3.7	62.7	3.5
	농산어촌	57.5	4.0	64.7	3.3

		2020년		2017년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4.8	3.9	67.2	3.2
	100~200만원 미만	54.9	4.0	60.0	3.6
	200~300만원 미만	57.5	3.9	61.6	3.4
	300~400만원 미만	65.1	3.5	71.7	3.0
	400~500만원 미만	69.3	3.4	69.2	3.2
	500~600만원 미만	63.2	3.6	66.6	3.3
	600만원 이상	64.5	3.6	61.6	3.5
주양육자	초졸 이하	40.8	4.4	59.8	3.7
학력	중졸	36.8	4.8	54.6	3.7
	고졸	63.1	3.6	68.7	3.2
	대졸 이상	67.3	3.4	66.4	3.3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문항에 대한 응답은 0~10점의 11점 척도이며, 비중은 0~4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우울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청소년의 비중은 2017년 79.2%에서 2020년 76.4%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만 19~24세(2017년 77.4%에서 2020년 72.4%로 5.0%p 하락), 농산어촌 거주(81.8%에서 68.4%로 13.4%p 하락), 저소득 가구(특히, 가구소득이 월평균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의 청소년에게 있어 76.3%에서 64.7%로 11.6%p 하락), 저학력 양육자(해당 청소년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68.6%에서 43.8%로 24.8%p 하락)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표 II-11 주관적 안녕감 : 우울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76.4	2.9	79.2	2.5
연령	만 9~12세	84.8	2.3	85.4	2.0
	만 13~18세	76.8	2.9	78.1	2.5
	만 19~24세	72.4	3.2	77.4	2.8
성	남	76.2	2.9	80.2	2.5
	여	76.7	2.9	78.3	2.6
지역규모	대도시	83.5	2.5	81.5	2.4
	중소도시	72.4	3.1	75.8	2.8
	농산어촌	68.4	3.4	81.8	2.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8.5	3.4	72.9	2.8
	100~200만원 미만	64.7	3.5	74.8	2.6
	200~300만원 미만	64.7	3.4	76.3	2.5
	300~400만원 미만	74.0	3.0	81.6	2.3
	400~500만원 미만	78.8	2.8	80.4	2.5
	500~600만원 미만	75.9	2.9	81.1	2.6
	600만원 이상	80.3	2.7	73.6	2.8
주양육자	초졸 이하	43.8	4.1	68.6	2.8
학력	중졸	50.1	3.9	69.0	2.9
	고졸	74.9	3.0	81.7	2.4
	대졸 이상	78.7	2.8	77.4	2.6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문항에 대한 응답은 0~10점의 11점 척도이며, 비중은 0~4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은 2014년에 85.4%였으나 2017년과 2020년에는 각각 76.8%와 76.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남성(2017년 77.5%에서 2020년 74.9%로 2.6%p 하락)이거나 중소도시(2017년 74.2%에서 2020년 73.0%로 1.2%p 하락)에 거주하거나 저소득 가구이거나 주양육자가 저학력인 경우(특히, 해당 청소년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017년 73.6%에서 2020년 49.1%로 24.5%p 하락)의 청소년일수록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표 II-12 주관적 안녕감 : 삶에 대한 만족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76.1	6.6	76.8	6.8
연령	만 9~12세	83.7	7.0	86.0	7.4
	만 13~18세	76.9	6.7	75.3	6.8
	만 19~24세	72.2	6.4	73.9	6.5
성	남	74.9	6.5	77.5	6.8
	여	77.5	6.6	75.9	6.7
지역규모	대도시	80.2	6.8	78.9	6.9
	중소도시	73.0	6.4	74.2	6.6
	농산어촌	73.8	6.6	76.8	6.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1.5	6.3	67.7	6.5
	100~200만원 미만	65.5	6.3	60.6	6.5
	200~300만원 미만	67.4	6.3	70.9	6.6
	300~400만원 미만	74.3	6.6	77.9	6.9
	400~500만원 미만	76.5	6.6	76.4	6.8
	500~600만원 미만	77.5	6.6	80.9	6.7
	600만원 이상	79.3	6.8	80.4	6.8
주양육자	초졸 이하	49.1	5.4	73.6	6.5
학력	중졸	48.8	5.4	64.7	6.0
	고졸	75.4	6.5	76.6	6.7
	대졸 이상	77.5	6.7	77.4	6.8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문항에 대한 응답은 0~10점의 11점 척도이며, 비중은 6~10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신이 하고 있는 일(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학업 등)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경우의 비중은 2014년에 91.1%였으나 2017년에 77.9%로

크게 감소한 이후에 2020년에 79.6%로 소폭 상승하였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경우는 만 9~12세(84.3%에서 83.0%로 1.3%p 감소), 농산어촌 거주(76.6%에서 74.9%로 1.7%p 감소), 가구소득이 월 200~300만원 미만(73.1%에서 67.5%로 5.6%p 감소),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78.8%에서 48.1%로 30.7%p 감소)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나타난다.

표 II-13 주관적 안녕감 : 일에 대한 자부심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79.6	6.7	77.9	6.9
연령	만 9~12세	83.0	7.0	84.3	7.3
	만 13~18세	81.0	6.8	76.1	6.8
	만 19~24세	76.6	6.5	76.9	6.7
성	남	78.4	6.6	78.4	6.9
	여	80.6	6.8	77.4	6.8
지역규모	대도시	83.6	6.9	80.8	7.0
	중소도시	77.1	6.6	75.6	6.7
	농산어촌	74.9	6.6	76.6	6.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6.7	6.3	55.8	6.0
	100~200만원 미만	66.3	6.4	58.2	6.3
	200~300만원 미만	67.5	6.4	73.1	6.7
	300~400만원 미만	77.8	6.6	79.2	6.9
	400~500만원 미만	80.1	6.7	77.6	6.8
	500~600만원 미만	82.1	6.7	83.9	7.0
	600만원 이상	82.3	6.9	81.1	7.0
주양육자	초졸 이하	48.1	5.7	78.8	6.6
학력	중졸	59.9	5.7	70.5	6.5
	고졸	79.4	6.6	77.5	6.8
	대졸 이상	80.6	6.8	78.8	6.9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문항에 대한 응답은 0~10점의 11점 척도이며, 비중은 6~10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 가정생활의 변화

1) 사회조사

가족 관계 만족도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비중은 2020년에 76.4%로 2018년의 74.3%에 비해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비중이 61.7%에서 63.4%로 1.7%p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인 가족 관계의 경우 70.4%에서 73.4%로 3.0%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14 가정생활 여건의 변화

가족 관계 만족도		2020년	2018년	변화
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	45.2	37.9	7.3
	약간 만족	31.2	36.4	-5.2
	보통	19.6	21.0	-1.4
	약간 불만족	3.1	3.6	-0.5
	매우 불만족	0.6	0.6	0.0
	해당 없음	0.3	0.5	-0.2
형제자매와의 관계	매우 만족	35.8	29.8	6.0
	약간 만족	27.6	31.9	-4.3
	보통	21.5	24.0	-2.6
	약간 불만족	3.2	3.1	0.1
	매우 불만족	1.2	1.1	0.1
	해당 없음	10.8	10.2	0.6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매우 만족	41.6	34.3	7.3
	약간 만족	31.8	36.1	-4.3
	보통	23.8	26.6	-2.8
	약간 불만족	2.3	2.6	-0.3
	매우 불만족	0.4	0.4	0.0
	해당 없음	0.1	0.1	-0.1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8년에 29.8%에서 2020년에 27.2%로 2.6%p가량 감소하였다.

표 II-15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_가정생활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많이 느꼈음	3.0	3.1	-0.1
느낀 편임	24.2	26.7	-2.6
느끼지 않은 편임	45.9	49.4	-3.4
전혀 느끼지 않았음	26.9	20.8	6.1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코로나19를 전후로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관계 만족도에서의 변화를 성향점수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매칭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속성이나 가구의 특성 등에서 유사함에도 2018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에 비해 2020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의 경우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⁴⁾ 다만,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증가는 매칭 이후에 유의성이 사라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관계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결과나 다른 자료에서의 결과와 일관된다.

4) 2018년 조사에 포함된 청소년과 2020년 조사에 포함된 청소년 간 매칭을 위한 회귀분석결과와 부록의 표 A4에 제시되었다.

변수	매칭 여부	2020년	2018년	차이	t-값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부	2.9	2.8	0.1	4.7
	여		2.8	0.1	3.5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부	4.1	4.1	0.1	4.6
	여		4.1	0.0	2.4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부	4.0	3.9	0.1	2.6
	여		4.0	0.0	0.9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	부	4.1	4.0	0.1	4.8
	여		4.0	0.1	2.8

주: 스트레스의 정도는 1~4점의 4점 척도로 1이 매우 많이 느낌, 4가 전혀 느끼지 않음을 나타냄. 가족 관계 만족도는 조사에서 1~5점의 5점 척도로 1이 매우 만족, 5가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의 비중은 2018년 53.1%에서 2020년 49.8%로 3.3%p 감소한 반면에 하루 6~8시간의 적정 수면을 실천한 비중은 71.5%에서 78.4%로 6.9%p 증가하였고 규칙적 운동-건강의 유지를 위해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의 지속-을 실천한 비중 역시 35.6%에서 42.6%로 7.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표 II-16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건강관리	2020년	2018년	변화
아침식사	49.8	53.1	-3.3
적정 수면	78.4	71.5	6.9
규칙적 운동	42.6	35.6	7.0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2) 생활시간조사

주행동 시간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14년 대비 2019년에 평일 기준 8시간 48분에서 9시간 6분으로 18분이 증가하였고 주말 기준 9시간 49분에서 10시간 10분으로 21분이 증가하였다.

표 II-17 주행동 시간량(수면) : 초등학생

주행동 시간량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수면(평일)	9	6	8	48	18
수면(주말)	10	10	9	49	21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중학생의 경우에는 평일 기준 7시간 57분에서 8시간 16분으로 19분이 증가하였고, 주말 기준 9시 35분에서 9시 56분으로 21분이 증가하였다.

표 II-18 주행동 시간량(수면) : 중학생

주행동 시간량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수면(평일)	8	16	7	57	19
수면(주말)	9	56	9	35	21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 기준 7시간 3분에서 7시간 33분으로 30분이 증가하였고, 주말 기준 9시간 8분에서 9시간 26분으로 18분이 증가하였다.

표 II-19 주행동 시간량(수면) : 고등학생

주행동 시간량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수면(평일)	7	33	7	3	30
수면(주말)	9	26	9	8	18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대학생의 경우 평일 기준 7시간 57분에서 8시간 9분으로 11분이 증가하였고, 주말 기준 9시간에서 9시간 14분으로 14분이 증가하였다.

표 II-20 주행동 시간량(수면) : 대학생

주행동 시간량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수면(평일)	8	9	7	57	11
수면(주말)	9	14	9	0	14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과의 관계가 만족스런 비중은 2011년 89.4%, 2014년 90.8%, 2017년 95.0%, 2020년 95.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의 청소년은 최근에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95.9	8.1	95.0	3.2
연령	만 9~12세	97.8	8.3	96.5	3.3
	만 13~18세	95.9	8.1	95.9	3.2
	만 19~24세	95.1	7.9	93.6	3.1
성	남	95.4	8.0	94.6	3.2
	여	96.6	8.1	95.5	3.2
지역규모	대도시	97.3	8.2	95.7	3.2
	중소도시	94.9	7.9	94.1	3.1
	농산어촌	95.0	7.9	95.0	3.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1.0	7.9	87.9	3.0
	100~200만원 미만	88.9	7.5	88.9	3.1
	200~300만원 미만	91.9	7.6	93.2	3.2
	300~400만원 미만	95.0	7.9	95.8	3.2
	400~500만원 미만	96.3	8.0	95.4	3.2
	500~600만원 미만	96.6	8.1	95.7	3.2
	600만원 이상	97.5	8.4	96.1	3.2
주양육자	초졸 이하	68.2	7.0	82.5	3.0
학력	중졸	83.4	7.2	83.7	3.0
	고졸	95.1	7.9	94.9	3.2
	대졸 이상	96.9	8.2	96.2	3.2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2020년 만족도는 0~10점의 11점 척도인 반면에 2017년의 경우 1~4점의 4점 척도임. 만족하는 비중은 2020년에 6점 이상의 비중이며, 2017년에 3점 이상의 비중에 해당함

3.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의 변화

1) 사회조사

2020년 기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의 비중은 33.9%로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의 비중(27.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2018년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큰 폭(17.8%p)의 감소를 나타낸다.

표 II-22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_학교생활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많이 느꼈음	5.7	7.1	-1.3
느낀 편임	28.2	44.7	-16.5
느끼지 않은 편임	42.2	35.1	7.1
전혀 느끼지 않았음	23.9	13.2	10.7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하는 비중은 2018년 17.6%에서 2020년 25.2%로 7.6%p 상승하였으나 약간 만족의 비중은 40.4%에서 34.1%로 6.3%p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만족의 비중이 1.3%p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학교생활 관련 부문별로는 교육 내용(교육 수준)에 대한 만족의 비중이 4.1%p 증가하였고, 교육 방법(수업 및 평가 방법) 4.0%p, 교사와의 관계 3.7%p, 학교 시설 및 설비 8.3%p, 학교 주변 환경 7.9%p 증가한 반면에,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하는 비중이 4.0%p 증가하였으나 약간 만족하는 비중에서 7.4%p 감소하여 만족의 비중이 3.4%p 감소하였다.

표 II-23 학교생활 여건의 변화

학교생활 여건		2020년	2018년	변화
교육 내용	매우 만족	23.1	14.8	8.3
	약간 만족	34.1	38.3	-4.2
	보통	34.6	38.7	-4.1
	약간 불만족	6.5	6.7	-0.2
	매우 불만족	1.7	1.5	0.2
교육 방법	매우 만족	18.5	13.4	5.1
	약간 만족	30.3	31.4	-1.1
	보통	36.0	41.9	-5.9
	약간 불만족	12.3	11.2	1.1
	매우 불만족	2.9	2.2	0.7
교우 관계	매우 만족	37.6	33.6	4.0
	약간 만족	35.7	43.1	-7.4
	보통	23.8	21.3	2.5
	약간 불만족	2.5	1.9	0.6
	매우 불만족	0.5	0.1	0.4
교사와의 관계	매우 만족	30.2	24.3	5.9
	약간 만족	34.6	36.8	-2.2
	보통	31.6	34.0	-2.4
	약간 불만족	3.1	4.2	-1.1
	매우 불만족	0.5	0.7	-0.2
학교 시설 및 설비	매우 만족	22.8	15.2	7.6
	약간 만족	32.9	32.2	0.7
	보통	35.2	40.8	-5.6
	약간 불만족	7.2	9.0	-1.8
	매우 불만족	1.9	2.8	-0.9
학교 주변 환경	매우 만족	24.5	14.7	9.8
	약간 만족	30.5	32.4	-1.9
	보통	35.7	41.9	-6.2
	약간 불만족	6.8	8.6	-1.8
	매우 불만족	2.5	2.4	0.1
전반적인 학교생활	매우 만족	25.2	17.6	7.6
	약간 만족	34.1	40.4	-6.3
	보통	36.2	37.4	-1.2
	약간 불만족	3.7	4.1	-0.4
	매우 불만족	0.9	0.5	0.4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코로나19를 전후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여건의 만족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2018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을 2020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에 매칭한 이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⁵⁾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 시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은 모두 매칭 여부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교육 방법과 교우 관계는 코로나19 전후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 여건의 만족도는 매칭을 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상승을 나타내나 매칭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전반적인 학교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변수	매칭 여부	2020년	2018년	차이	t-값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부	2.8	2.5	0.3	16.1
	여		2.5	0.3	11.6
학교생활 만족 : 교육 내용	부	3.6	3.5	0.1	3.8
	여		3.5	0.0	2.4
학교생활 만족 : 교육 방법	부	3.4	3.4	0.0	1.3
	여		3.4	0.1	1.2
학교생활 만족 : 교우 관계	부	4.1	4.1	-0.0	-0.6
	여		4.1	-0.0	-1.1
학교생활 만족 : 교사와의 관계	부	3.8	3.7	0.1	3.6
	여		3.8	0.1	2.1
학교생활 만족 : 학교 시설	부	3.6	3.4	0.1	6.0
	여		3.5	0.1	3.8
학교생활 만족 : 학교 주변 환경	부	3.6	3.4	0.1	5.6
	여		3.5	0.1	3.3
학교생활 만족 : 전반	부	3.7	3.7	0.1	2.9
	여		3.7	0.1	1.4

주: 스트레스의 정도는 1~4점의 4점 척도로 1이 매우 많이 느낌, 4가 전혀 느끼지 않음을 나타냄. 학교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에서 1~5점의 5점 척도로 1이 매우 만족, 5가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나타냄.

5) 매칭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결과는 부록의 표 A4에 제시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2018년과 2020년에 부모님(가족)의 도움이 각각 62.5%와 64.1%로 약간 상승하였고, 장학금의 비중은 각각 25.4%와 25.7%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에 대출(학자금 대출 등)의 비중은 8.96%에서 7.08%로 다소 감소하였다.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의 비중은 2018년에 3.1%, 2020년에 3.2%로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

표 II-24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

등록금 마련 방법	2020년	2018년	변화
부모님(가족)의 도움	64.07	62.49	1.58
대출(학자금 대출 등)	7.08	8.96	-1.88
스스로 벌어서 마련	3.19	3.09	0.10
장학금	25.66	25.39	0.27
기타	0.00	0.07	-0.07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교육기회의 충족도-즉,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2020년에 72.9%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1.6%p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표 II-25 대학생의 교육기회 충족도와 미충족 사유

교육기회		2020년	2018년	변화
충족 여부	여	72.9	71.3	1.6
	부	27.1	28.7	
미충족 사유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36.7	32.1	4.6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1.7	3.4	-1.8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 부진으로	51.2	53.2	-2.0
	부모 및 가족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1.9	3.0	-1.1
	본인이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2.5	1.0	1.5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3.0	2.0	1.0
	기타	3.2	5.3	-2.1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사유로는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 부진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그 다음은 학비 마련의 어려움(36.7%, 2020년 기준)으로 조사된다. 그 외에 질병 또는 장애(3.0%), 가사 돌봄(2.5%), 부모 및 가족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1.9%), 인근 학교의 부재(1.7%) 등이 사유로 지적된다. 개별 사유의 비중이 2018년과 2020년에 대체로 유사하지만, 인근 학교의 부재가 사유인 경우의 비중은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전공과 가장 최근의 직업 간 일치의 정도에서 일치하는 비중은 2018년에 42.6%에서 2020년에 38.9%로 3.7%p 감소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비중 역시 30.6%에서 32.7%로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6 전공과 직업 일치도

	2020년	2018년	변화
매우 일치함	19.9	19.6	0.3
일치하는 편임	19.0	23.0	-4.0
보통	28.4	26.8	1.6
일치하지 않는 편임	20.7	17.3	3.4
전혀 일치하지 않음	12.0	13.3	-1.3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학교 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51.8%에서 2020년 56.0%로 4.2%p 증가하였고, 도덕성 발달이나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9%에서 37.7%로 3.8%p 증가하였다. 국가관 혹은 사회관 정립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 역시 30.9%에서 35.7%로 4.8%p 증가하였고, 생활, 직업, 취업에 있어서의 활용 측면에서는 41.8%에서 47.4%로 5.6%p만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의

효과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가 긍정적임에도 전공과 직업 간 일치도에 있어서의 최근의 하락은 청소년의 일자리 지속성 및 경력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를테면, 일자리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전공 관련 적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사 등-이 요구된다.

표 II-27 학교 교육의 효과

학교 교육의 효과		2020년	2018년	변화
지식 및 기술 습득	매우 효과 있음	16.5	12.2	4.3
	약간 효과 있음	39.5	39.6	-0.1
	보통	32.4	34.2	-1.9
	별로 효과 없음	8.0	10.6	-2.6
	전혀 효과 없음	2.2	2.5	-0.3
	잘 모르겠음	1.4	1.0	0.4
도덕성 발달 및 인성 함양	매우 효과 있음	10.6	7.3	3.3
	약간 효과 있음	27.1	26.6	0.5
	보통	39.0	41.1	-2.1
	별로 효과 없음	15.8	18.1	-2.4
	전혀 효과 없음	5.9	5.6	0.3
	잘 모르겠음	1.7	1.2	0.5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매우 효과 있음	9.8	6.2	3.6
	약간 효과 있음	25.9	24.7	1.2
	보통	42.3	42.8	-0.5
	별로 효과 없음	14.2	19.4	-5.2
	전혀 효과 없음	5.2	5.0	0.2
	잘 모르겠음	2.7	1.9	0.8
생활/직업/취업 활용	매우 효과 있음	14.7	10.5	4.2
	약간 효과 있음	32.7	31.3	1.4
	보통	35.9	37.8	-1.9

학교 교육의 효과		2020년	2018년	변화
생활/직업/취업 활용	별로 효과 없음	11.0	14.5	-3.5
	전혀 효과 없음	3.6	4.3	-0.7
	잘 모르겠음	2.1	1.6	0.5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8,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2) 생활시간조사

청소년의 학교생활관련 주행동 시간량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시간이 2014년 4시간 29분에서 2019년 3시간 53분으로 36분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수업시간에서의 30분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은 2019년에 2시간 16분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며 학원수강에 평균 1시간 1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8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초등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학교생활	3	53	4	29	-36
학교수업	3	9	3	40	-30
학교수업 간 휴식		15		9	6
학교자율학습		8		12	-4
학교행사		6		5	1
기타 학교활동		15		24	-9
학교 외 학습	2	16	2	18	-2
학원수강	1	15	1	16	0
방송/온라인 강의수강		3		2	1
스스로 학습		51		58	-7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7		2	5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중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시간이 2014년 5시간 28분에서 2019년 4시간 29분으로 대략 1시간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수업시간(47분 감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학교 이외에서의 시간은 2019년에 2시간 52분으로 이는 2014년에 비해 14분가량 증가한 수준이며, 학원수강에서 7분이 증가하였다. 중학생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1시간 11분으로 학교 이외 학습시간에서 41.3%를 차지하여, 37.5%의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II-29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중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학교생활	4	29	5	28	-59
학교수업	3	36	4	22	-47
학교수업 간 휴식		16		10	6
학교자율학습		12		18	-6
학교행사		3		4	-1
기타 학교활동		21		33	-11
학교 외 학습	2	52	2	37	14
학원수강	1	30	1	22	7
방송/온라인 강의수강		3		4	-1
스스로 학습	1	11	1	9	2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7		2	6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표 II-30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고등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학교생활	5	17	7	18	-121
학교수업	3	54	5	7	-73
학교수업 간 휴식		16		13	3
학교자율학습		41	1	20	-39
학교행사		6		6	0
기타 학교활동		20		32	-12
학교 외 학습	2	40	1	45	55
학원수강	1	5		39	26
방송/온라인 강의수강		10		4	6
스스로 학습	1	19	1	0	19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6		1	4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014년 7시간 18분에서 2019년 5시간 17분으로 대략 2시간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생활 가운데 수업에서 1시간 13분이 감소하였고, 자율학습에서 39분이 감소하였다. 대신에 학교 밖에서의 학습시간이 55분가량 증가하였다. 학원수강이 26분, 스스로 학습이 19분만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생에 있어서는 수업시간이 2014년 2시간 35분에서 2019년 2시간 12분으로 23분가량 감소하였다. 고등학생과 달리 학교 이외에서의 학습시간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19분만큼 감소하였다.

표 II-31 주행동 시간량(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대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 (분)
	시간	분	시간	분	
학교생활	2	44	2	58	-14
학교수업	2	12	2	35	-23
학교수업 간 휴식		4		3	2
학교자율학습		19		5	14
학교행사		2		3	0
기타 학교활동		6		12	-6
학교 외 학습	1	48	1	59	-11
학원수강		8		6	2
방송/온라인 강의수강		12		6	6
스스로 학습	1	25	1	43	-19
기타 학교활동 외 학습		3		3	0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2011년 65.9%에서 2014년 69.5%, 2017년 71.8%, 2020년 7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 수준이 중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2020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2 학교생활 만족도 : 수업시간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76.6	2.8	71.8	2.8
연령	만 9~12세	83.4	2.9	78.9	2.9
	만 13~18세	72.2	2.8	67.6	2.7
	만 19~24세	67.9	2.7	-	-
성	남	74.1	2.8	70.6	2.8
	여	79.2	2.9	73.1	2.8
지역규모	대도시	78.9	2.9	71.5	2.8
	중소도시	75.8	2.8	69.9	2.8
	농산어촌	73.4	2.8	77.0	2.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5	2.8	66.9	2.8
	100~200만원 미만	63.7	2.6	77.3	2.9
	200~300만원 미만	72.1	2.8	70.5	2.8
	300~400만원 미만	74.6	2.8	71.9	2.8
	400~500만원 미만	76.0	2.8	71.0	2.8
	500~600만원 미만	78.7	2.9	72.5	2.8
	600만원 이상	78.9	2.9	72.6	2.8
주양육자	초졸 이하	60.9	2.7	80.6	3.0
학력	중졸	67.6	2.6	79.4	2.9
	고졸	72.4	2.8	70.4	2.8
	대졸 이상	78.8	2.9	72.6	2.8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은 2011년 82.1%에서 2014년 85.9%, 2017년 88.3%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8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기준, 학교급이 높거나 남학생에 해당하거나 규모가 작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선생님과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에서 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과 2020년 두 시점 간 변화에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에 만족도의 하락폭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33 학교생활 만족도 : 선생님과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83.0	2.9	88.3	3.0
연령	만 9~12세	86.4	3.0	90.9	3.1
	만 13~18세	81.3	2.9	86.8	3.0
	만 19~24세	71.1	2.7	-	-
성	남	81.3	2.9	88.6	3.0
	여	84.8	3.0	87.9	3.0
지역규모	대도시	86.9	3.0	88.5	3.0
	중소도시	81.7	2.9	86.3	3.0
	농산어촌	77.7	2.8	92.6	3.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5	2.8	91.9	3.0
	100~200만원 미만	75.7	2.8	88.6	3.1
	200~300만원 미만	84.8	3.0	88.4	3.0
	300~400만원 미만	81.6	2.9	88.2	3.0
	400~500만원 미만	82.2	2.9	86.3	3.0
	500~600만원 미만	81.6	2.9	89.4	3.0
	600만원 이상	87.9	3.0	92.2	3.0
주양육자	초졸 이하	63.7	2.6	93.2	3.1
학력	중졸	74.7	2.8	90.8	3.1
	고졸	81.7	2.9	87.0	3.0
	대졸 이상	83.9	2.9	89.2	3.0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2011년 58.6%, 2014년 65.6%, 2017년 79.1%, 2020년 80.6%로 2017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낸다. 2017년 대비 2020년에 면학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는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초졸 이하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표 II-34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의 면학 분위기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80.6	3.0	79.1	2.9
연령	만 9~12세	85.2	3.0	86.1	3.1
	만 13~18세	78.3	2.9	74.9	2.9
	만 19~24세	65.0	2.7	-	-
성	남	79.7	2.9	79.8	2.9
	여	81.7	3.0	78.3	2.9
지역규모	대도시	84.1	3.0	82.4	3.0
	중소도시	79.0	2.9	74.7	2.9
	농산어촌	77.0	2.9	81.0	3.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4	2.9	69.0	2.7
	100~200만원 미만	72.1	2.8	77.9	2.9
	200~300만원 미만	72.0	2.8	74.9	2.9
	300~400만원 미만	81.5	3.0	79.4	2.9
	400~500만원 미만	81.0	3.0	78.5	2.9
	500~600만원 미만	79.5	2.9	81.9	3.0
	600만원 이상	83.7	3.0	82.8	3.0
주양육자	초졸 이하	66.8	2.7	71.9	2.9
학력	중졸	80.8	2.8	80.2	3.0
	고졸	79.3	2.9	77.7	2.9
	대졸 이상	81.5	3.0	80.3	3.0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답변한 경우의 비중은 2011년 48.9%, 2014년 56.3%, 2017년 71.6%, 2020년 74.2%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지만, 만 9~12세의 연령, 농산어촌 거주,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중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2017년 대비 2020년에 해당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의 경우 대학생에 해당하는 만 19~24세 연령대에서 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자치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35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들의 의견 반영

		2020		2017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74.2	2.9	71.6	2.8
연령	만 9~12세	77.4	2.9	80.2	3.0
	만 13~18세	72.3	2.8	66.5	2.8
	만 19~24세	67.8	2.8	-	-
성	남	73.4	2.9	71.5	2.8
	여	75.0	2.9	71.9	2.8
지역규모	대도시	74.7	2.9	73.2	2.9
	중소도시	73.4	2.9	68.3	2.8
	농산어촌	74.9	2.9	75.4	2.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6.4	2.9	65.8	2.8
	100~200만원 미만	75.1	2.8	73.4	2.8
	200~300만원 미만	71.6	2.8	74.2	2.9
	300~400만원 미만	74.3	2.9	70.9	2.8
	400~500만원 미만	73.5	2.9	68.4	2.8
	500~600만원 미만	73.6	2.9	74.5	2.9
	600만원 이상	76.9	2.9	75.9	2.9
주양육자	초졸 이하	73.7	2.9	74.2	2.9
학력	중졸	74.5	2.8	78.9	2.9
	고졸	70.9	2.8	70.9	2.8
	대졸 이상	75.9	2.9	72.0	2.9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4. 여가생활의 변화

1) 사회조사

여가 활용관련 만족하는 비중은 만 13~24세에서 2019년에 41.2%로 2017년의 39.9%에 비해 1.3%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8세의 경우 동기간 44.0%에서 45.2%로 상승하였고, 만 19~24세의 청소년에 있어서는 36.3%에서 38.0%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만족의 수준은 낮으나 상승폭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불만족의 비중은 만 13~18세에서 0.2%p 상승한데 반해 만 19~24세의 경우에는 2.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간 여가 활용 만족도에서의 격차가 최근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36 여가 활용 만족도

구분	만족도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매우 만족	13.6	12.0	1.6
	약간 만족	27.6	27.9	-0.3
	보통	41.4	41.4	0.0
	약간 불만족	14.2	15.1	-1.0
	매우 불만족	3.3	3.6	-0.3
만 13~18세	매우 만족	17.9	16.1	1.8
	약간 만족	27.3	27.9	-0.6
	보통	35.9	37.4	-1.5
	약간 불만족	15.1	15.6	-0.6
	매우 불만족	3.8	3.0	0.8
만 19~24세	매우 만족	10.2	8.3	1.9
	약간 만족	27.8	28.0	-0.2
	보통	45.7	45.0	0.7
	약간 불만족	13.5	14.7	-1.2
	매우 불만족	2.9	4.1	-1.2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여가 활용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2019년 기준 경제적 부담(44.7%)과 시간 부족(39.9%)이 주를 이루며, 적당한 취미의 부재(6.5%), 시설 부족(2.6%)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령대별로는 만 13~18세의 경우 시간 부족(59.7%)이 불만족의 주된 이유이며 경제적 부담(26.8%)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만 19~24세에 있어서는 경제적 부담(60.9%)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II-37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구분	이유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경제적 부담	44.7	42.9	1.8
	시간 부족	39.9	41.9	-2.0
	교통 혼잡/교통수단 불편	1.0	1.3	-0.3
	시설 부족	2.6	3.3	-0.7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8	1.1	0.7
	적당한 취미 부재	6.5	5.5	1.1
	체력이나 건강 문제	1.5	1.9	-0.5
	함께 즐길 사람 부재	1.4	1.9	-0.5
	기타	0.7	0.4	0.3
만 13~18세	경제적 부담	26.8	28.2	-1.4
	시간 부족	59.7	56.4	3.4
	교통 혼잡/교통수단 불편	0.8	1.2	-0.5
	시설 부족	3.8	3.9	-0.1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2	1.1	0.1
	적당한 취미 부재	5.8	6.3	-0.5
	체력이나 건강 문제	0.4	0.7	-0.4
	함께 즐길 사람 부재	1.4	1.9	-0.5
	기타	0.3	0.4	-0.1
만 19~24세	경제적 부담	60.9	55.8	5.0
	시간 부족	21.9	29.0	-7.2

구분	이유	2019년	2017년	변화
만 19~24세	교통 혼잡/교통수단 불편	1.2	1.3	-0.1
	시설 부족	1.6	2.7	-1.1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2.3	1.0	1.2
	적당한 취미 부재	7.2	4.7	2.5
	체력이나 건강 문제	2.5	3.0	-0.5
	함께 즐길 사람 부재	1.5	2.0	-0.5
	기타	1.0	0.4	0.7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중 여가 활용의 2019년 분포를 살펴보면,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39.8%), TV시청(21.6%), 휴식 활동(16.3%), 취미 혹은 자기개발 활동(10.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TV시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은 증가하였다. 만 13~18세의 경우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의 비중은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38 주중 여가 활용(1순위)

구분	주중 여가 활용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TV시청	21.6	27.3	-5.7
	문화예술 관람	3.4	3.9	-0.5
	문화예술 참여	1.0	1.0	0.0
	스포츠 관람	1.4	1.2	0.2
	스포츠 활동	4.1	5.2	-1.1
	관광	0.3	0.4	-0.1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39.8	34.7	5.1
	취미/자기개발 활동	10.7	9.4	1.3
	휴식 활동	16.3	15.7	0.6
	봉사/종교/사교 활동	1.5	1.2	0.4
	기타	0.0	0.2	-0.2

구분	주중 여가 활용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18세	TV시청	19.9	23.9	-4.0
	문화예술 관람	1.6	1.9	-0.3
	문화예술 참여	1.0	1.1	-0.2
	스포츠 관람	1.2	0.9	0.3
	스포츠 활동	4.1	5.9	-1.8
	관광	0.0	0.3	-0.3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47.9	41.7	6.3
	취미/자기개발 활동	9.1	8.0	1.1
	휴식 활동	14.4	14.9	-0.5
	봉사/종교/사교 활동	0.7	1.2	-0.5
	기타	0.0	0.1	-0.1
만 19~24세	TV시청	22.9	30.2	-7.4
	문화예술 관람	4.8	5.7	-0.9
	문화예술 참여	1.0	0.8	0.1
	스포츠 관람	1.6	1.5	0.1
	스포츠 활동	4.1	4.5	-0.4
	관광	0.6	0.6	0.0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33.4	28.5	4.9
	취미/자기개발 활동	11.8	10.6	1.3
	휴식 활동	17.8	16.3	1.4
	봉사/종교/사교 활동	2.2	1.1	1.0
	기타	0.0	0.2	-0.2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표 II-39 주말 여가 활용(1순위)

구분	주중 여가 활용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TV시청	16.2	19.4	-3.3
	문화예술 관람	9.1	10.5	-1.4
	문화예술 참여	1.0	1.1	-0.2
	스포츠 관람	1.6	1.2	0.4
	스포츠 활동	5.1	6.0	-0.8
	관광	2.9	3.2	-0.3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33.5	29.9	3.6
	취미/자기개발 활동	6.9	6.2	0.7
	휴식 활동	19.6	18.4	1.2
	봉사/종교/사고 활동	4.2	3.9	0.3
	기타	0.0	0.2	-0.2
만 13~18세	TV시청	16.0	17.7	-1.7
	문화예술 관람	6.6	7.5	-0.9
	문화예술 참여	1.0	1.1	-0.2
	스포츠 관람	1.3	1.1	0.1
	스포츠 활동	6.1	6.7	-0.7
	관광	1.7	1.6	0.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42.2	38.2	4.0
	취미/자기개발 활동	5.6	5.7	-0.2
	휴식 활동	17.5	16.4	1.0
	봉사/종교/사고 활동	2.2	3.7	-1.6
	기타	0.0	0.2	-0.2
만 19~24세	TV시청	16.3	21.0	-4.7
	문화예술 관람	11.0	13.2	-2.1
	문화예술 참여	1.0	1.1	-0.2
	스포츠 관람	1.9	1.3	0.6
	스포츠 활동	4.4	5.3	-0.9
	관광	3.8	4.6	-0.8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26.7	22.5	4.1
	취미/자기개발 활동	7.9	6.7	1.3
	휴식 활동	21.2	20.1	1.1
	봉사/종교/사고 활동	5.8	4.0	1.8
	기타	0.0	0.2	-0.2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말의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33.5%), TV시청(16.2%)의 비중이 주중에 비해 감소하고 휴식활동(19.6%)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9년에 국내 여행에서 71.4%로 2017년의 73.4%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여행을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으로 구분해도 두 유형의 여행 모두에서 경험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한편, 해외 여행 경험의 비중은 2019년에 28.8%로 2017년의 24.7%에 비해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이 어려워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의외일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여행 경험 여부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의 기간에 행해진 여행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0 여행 경험 여부와 빈도

구분	여행 경험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국내 여행 경험 비중	71.4	73.4	-2.0
	국내 숙박여행 횟수	1.9	2.4	-0.5
	국내 당일여행 횟수	2.2	2.8	-0.6
	해외 여행 경험 비중	28.8	24.7	4.1
만 13~18세	국내 여행 경험 비중	72.8	73.1	-0.3
	해외 여행 경험 비중	22.3	18.3	4.0
만 19~24세	국내 여행 경험 비중	70.2	73.7	-3.5
	해외 여행 경험 비중	33.9	30.3	3.6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주: 2017년 조사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이뤄진 여행을 포함하고, 2019년 조사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의 기간에 이뤄진 여행을 포함함

독서와 관련하여, 지난 1년동안 책을 읽은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9년에 67.9%로 2017년의 72.2%에 비해 4.3%p 하락하였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

하고, 읽은 책의 종류별 권수를 보면 만화나 무협지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7.3권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종교, 소설, 시집, 역사, 예술서적 등을 포함하는 교양서적으로 6.3권에 해당한다. 책의 종류에 상관없이 2017년 대비 2019년에 독서권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만 13~18세의 경우 만 19~24세에 비해 책을 읽은 경우의 비중이 높고, 직업 관련 서적을 제외하면 독서권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1 독서 여부 및 독서권수

구분	독서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책을 읽은 경우 비중	67.9	72.2	-4.3
	서적 종류별 독서권수			
	잡지류	0.9	1.6	-0.7
	교양	6.3	6.9	-0.6
	직업/직무	1.6	1.7	-0.1
	생활/취미/정보	0.8	1.1	-0.3
	기타	7.3	10.1	-2.8
만 13~18세	책을 읽은 경우 비중	73.2	74.7	-1.5
	서적 종류별 독서권수			
	잡지류	0.9	1.4	-0.5
	교양	7.6	8.7	-1.1
	직업/직무	1.0	1.0	0.0
	생활/취미/정보	0.9	1.2	-0.3
	기타	8.8	9.9	-1.1
만 19~24세	책을 읽은 경우 비중	63.8	70.0	-6.2
	서적 종류별 독서권수			
	잡지류	0.8	1.7	-0.9
	교양	5.1	5.1	0.0
	직업/직무	2.1	2.5	-0.4
	생활/취미/정보	0.7	1.0	-0.3
	기타	5.9	10.2	-4.3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문화, 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2019년에 86.2%로 2017년의 87.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유형별 관람횟수를 보면, 영화가 7.16회로 가장 많고 그 이외의 유형에서는 모두 평균 1회에 미치지 못해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이 영화와 같은 특정 유형에 편중됨을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연령대에 의한 집단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이 그 빈도에서 충분하지 못하고 특정 유형에 편중되는 현상은 시간적 여유 부족, 금전적 제약,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한계 등에 기인할 것이다.

표 II-42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부와 관람횟수

구분	관람	2019년	2017년	변화
만 13~24세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비중	86.2	87.5	-1.3
	관람횟수			
	음악·연주회·콘서트	0.64	0.52	0.12
	연극·마당극·뮤지컬	0.56	0.59	-0.03
	무용	0.06	0.08	-0.02
	영화	7.16	7.15	0.01
	박물관	0.38	0.49	-0.11
	미술관	0.45	0.48	-0.03
	스포츠	0.78	0.76	0.02
만 13~18세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비중	86.6	87.4	-0.8
	관람횟수			
	음악·연주회·콘서트	0.55	0.46	0.09
	연극·마당극·뮤지컬	0.42	0.46	-0.04
	무용	0.09	0.11	-0.02
	영화	6.30	5.89	0.41
	박물관	0.45	0.54	-0.09
	미술관	0.35	0.33	0.02
	스포츠	0.71	0.71	0.00

구분	관람	2019년	2017년	변화
만 19~24세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비중	85.9	87.7	-1.8
	관람횟수			
	음악·연주회·콘서트	0.71	0.59	0.12
	연극·마당극·뮤지컬	0.67	0.71	-0.04
	무용	0.04	0.05	-0.01
	영화	7.85	8.34	-0.49
	박물관	0.32	0.44	-0.12
	미술관	0.53	0.63	-0.10
	스포츠	0.83	0.81	0.02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2) 생활시간조사

평소 시간이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청소년 대상 항상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은 2014년에 23.0%에서 2019년에는 20.5%로 하락하였으며 가끔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 역시 동 기간 42.9%에서 37.8%로 하락하여 최근에 시간적 여유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령기별로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비중은 2019년에 초등학생 41.1%, 중학생, 57.7%, 고등학생 64.6%, 대학(원)생 60.0%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2014년의 해당 수치에 비해 각각 9.1%p, 7.3%p, 8.5%p, 6.8%p 하락한 수치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시간의 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지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43 평소 시간 부족의 정도

평소 시간 부족의 정도		2019년	2014년	변화
전체	항상 부족	20.5	23.0	-2.5
	가끔 부족	37.8	42.9	-5.1
	약간 여유	33.1	27.2	5.9
	항상 여유	8.6	6.9	1.7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중	초등학생	41.1	50.2	-9.1
	중학생	57.7	65.0	-7.3
	고등학생	64.6	73.1	-8.5
	대학(원)생	60.0	66.8	-6.8
	졸업/수료/중퇴	63.7	70.5	-6.8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의해 학교급을 구분하였음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조사에만 포함되었으며, 만족도에 따른 비중은 매우 만족 13.3%, 약간 만족 28.7%, 보통 37.5%, 약간 불만족 16.8%, 매우 불만족 3.7%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령기별로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초등학생 59.6%, 중학생 42.7%, 고등학생 37.8%, 대학(원)생 42.7%, 그 외 32.7%를 차지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학령기가 높아질수록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표 II-44 여가시간 만족도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2019년
전체	매우 만족	13.3
	약간 만족	28.7
	보통	37.5
	약간 불만족	16.8
	매우 불만족	3.7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2019년
만족하는 비중	초등학생	59.6
	중학생	42.7
	고등학생	37.8
	대학(원)생	42.7
	졸업/수료/중퇴	32.7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에 의해 학교급을 구분하였음

초등학생의 평일 주행동 시간량을 살펴보면, 책읽는 시간은 2019년 기준 16분에 불과하며, 개인 운동시간도 4분으로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게임에 소요하는 시간은 50분에 해당하며 이는 2014년의 34분에 비해 16분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모바일 게임에 쓰는 시간이 38분으로 적지 않다. 개인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은 단지 3분에 불과하여, 취미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5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초등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책읽기		16		18	-2
개인 운동		4		3	2
게임		50		34	16
온라인/PC게임		12			
모바일 게임		38			
개인 취미활동		3		4	0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중학생의 평일 주행동 시간량은 책읽기 13분, 개인 운동 4분, 개인 취미활동 2분으로 초등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게임을 위한 시간은 56분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6분가량 많으며, 2014년과 비교해 14분정도 증가하였다.

표 II-46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중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책읽기		13		7	6
개인 운동		4		2	2
게임		56		42	14
온라인/PC게임		24			
모바일 게임		31			
개인 취미활동		2		2	0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고등학생의 평일 주행동 시간량은 책읽기 7분, 개인 운동 9분, 게임 48분, 개인 취미활동 3분으로 게임에 쓰는 시간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작으나 책 읽는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작다. 개인 운동 시간은 2014년에 비해 4분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분이 되지 않는다.

표 II-47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고등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책읽기		7		5	1
개인 운동		9		6	4
게임		48		36	12
온라인/PC게임		26			
모바일 게임		22			
개인 취미활동		3		1	2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대학생의 경우 2014년에 비해 게임 시간만 37분에서 45분으로 8분정도 증가하였을 뿐 책읽는 시간, 개인 운동 시간, 개인 취미활동 시간 모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8 주행동 시간량(여가생활) : 대학생, 평일

주행동 시간량(평일)	2019년		2014년		변화(분)
	시간	분	시간	분	
책읽기		10		10	0
개인 운동		13		12	1
게임		45		37	8
온라인/PC게임		32			
모바일 게임		13			
개인 취미활동		3		3	0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주: 재학생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됨

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지난 1주 간 운동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비중은 2020년에 60.9%로 2017년의 56.7%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평균 운동시간은 2.1시간으로 2017년(3.8시간)에 비해 1.7시간만큼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만 9~12세의 경우 비중은 74.6%에서 54.0%로 하락하였고 평균 활동시간도 4.2시간에서 2.2시간으로 감소하였다. 만 13~18세와 만 19~24세의 경우에는 운동활동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운동활동 경험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 간 차이에서 2017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운동활동 시간이 더 길었으나 2020년에는 그 차이가 매우 작고 오히려 여성의 경우에 보다 긴 시간 운동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운동활동 시간이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49 지난 1주 간 운동활동 유무 및 활동시간

		2020		2017	
		비중(%)	시간	비중(%)	시간
전체		60.9	2.1	56.7	3.8
연령	만 9~12세	54.0	2.2	74.6	4.2
	만 13~18세	61.4	2.0	59.3	3.5
	만 19~24세	63.9	2.1	46.9	4.0
성	남	53.3	2.1	62.0	4.1
	여	69.3	2.2	50.8	3.5
지역규모	대도시	58.4	2.2	56.4	3.8
	중소도시	63.3	2.1	56.8	3.7
	농산어촌	61.8	2.0	57.0	4.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2.6	2.4	55.1	4.8
	100~200만원 미만	60.7	2.4	55.4	4.2
	200~300만원 미만	65.4	2.5	57.8	3.8
	300~400만원 미만	66.9	2.0	56.5	3.8
	400~500만원 미만	64.3	2.1	56.9	3.8
	500~600만원 미만	63.4	2.1	54.4	3.8
	600만원 이상	47.1	2.2	59.8	4.0
주양육자	초졸 이하	63.0	2.7	55.1	5.5
학력	중졸	67.2	1.6	49.8	5.2
	고졸	65.2	2.1	53.1	3.7
	대졸 이상	57.5	2.1	61.1	3.9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비중은 운동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5.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1년 68.7%(만12~18세), 2014년 77.2%, 2017년 63.4%, 2020년 57.0%에 해당하여 2014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7년과 2020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만 19~24세, 여성, 농산어촌 거주,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초졸 이하 학력의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서 비중의 감소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50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문화·예술, 과학·정보

		문화·예술		과학·정보	
		2020	2017	2020	2017
전체		57.0	63.4	18.9	16.4
연령	만 9~12세	51.9	57.5	27.0	32.4
	만 13~18세	54.7	60.2	22.1	23.5
	만 19~24세	61.1	68.5	12.9	3.9
성	남	54.5	60.4	20.6	17.0
	여	59.9	66.8	17.0	15.7
지역규모	대도시	57.8	65.1	17.4	15.8
	중소도시	55.5	59.5	20.3	16.7
	농산어촌	58.6	67.8	19.6	17.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8.8	70.7	14.7	7.6
	100~200만원 미만	62.8	68.2	17.3	19.4
	200~300만원 미만	52.5	58.1	18.2	17.4
	300~400만원 미만	50.6	56.6	17.6	17.2
	400~500만원 미만	54.9	63.8	19.4	15.4
	500~600만원 미만	59.1	65.6	17.3	14.5
	600만원 이상	63.7	76.4	21.8	19.0

		문화·예술		과학·정보	
		2020	2017	2020	2017
주양육자 학력	초졸 이하	37.7	60.2	5.1	11.9
	중졸	67.2	67.5	17.6	9.3
	고졸	57.2	62.2	15.7	13.0
	대졸 이상	56.7	64.7	21.6	20.7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

과학·정보 관련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1년 63.7% (만 12~18세), 2014년 25.3%, 2017년 16.4%, 2020년 18.9%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만 9~12세(2017년 32.4%에서 2020년 27.0%로 5.4%p 감소), 월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9.4%에서 17.3%로 2.1%p 감소), 초졸 이하 학력의 주양육자(11.9%에서 5.1%로 6.8%p 감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51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모험·개척, 자원봉사

		모험·개척		자원봉사	
		2020	2017	2020	2017
전체		18.4	18.4	21.5	24.9
연령	만 9~12세	21.6	25.2	15.3	16.8
	만 13~18세	18.9	21.7	26.0	37.9
	만 19~24세	16.6	12.9	21.1	18.1
성	남	21.1	20.8	21.6	24.4
	여	15.4	15.7	21.4	25.3
지역규모	대도시	15.5	17.2	18.9	22.8
	중소도시	19.7	16.9	22.3	24.6
	농산어촌	22.5	25.0	25.7	30.7

		모험·개척		자원봉사	
		2020	2017	2020	201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4.3	27.5	18.3	37.1
	100~200만원 미만	22.5	25.0	28.1	35.2
	200~300만원 미만	24.8	21.2	20.3	27.2
	300~400만원 미만	17.5	17.1	18.3	24.9
	400~500만원 미만	18.6	16.8	22.0	23.6
	500~600만원 미만	17.0	17.7	20.1	21.9
	600만원 이상	18.7	20.6	24.5	25.6
주양육자	초졸 이하	5.3	21.4	10.3	26.9
학력	중졸	17.1	18.0	19.0	17.5
	고졸	17.8	16.7	21.9	24.2
	대졸 이상	18.9	20.2	21.2	25.9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

모험·개척과 관련한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1년 48.5% (만 12~18세), 2014년 36.9%, 2017년 18.4%, 2020년 18.4%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집단은 만 19~24세(16.6%), 여성(15.4%), 대도시 거주(15.5%),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4.3%),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5.3%)인 경우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해당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자원봉사 관련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비중은 2011년 25.5% (만 12~18세), 2014년 48.6%, 2017년 24.9%, 2020년 21.5%로 나타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집단은 만 9~12세(15.3%), 대도시 거주(18.9%),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8.3%),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10.3%)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경우 해당 비중이 2017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2011년 11.6% (만 12~18세), 2014년 52.3%, 2017년 24.7%, 2020년 20.9%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 집단은 만 9~12세(16.4%), 여성(20.3%), 대도시 거주(18.1%), 월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이 중졸(19.0%)에 속하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2017년과 비교하면, 만 13~18세(12.3%p 하락), 월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10.7%p 하락),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9.8%p 하락)인 청소년에게서 해당 비중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경험의 비중은 2014년 25.6%, 2017년 13.2%, 2020년 21.6%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대도시 거주(19.7%),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8.0%)인 경우에 속한다. 2017년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경우는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9.4%p 하락)이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11.7%p 하락)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표 II-52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직업·진로, 자기(인성)계발

		직업·진로		자기(인성)계발	
		2020	2017	2020	2017
전체		20.9	24.7	21.6	13.2
연령	만 9~12세	16.4	20.7	20.6	15.4
	만 13~18세	22.3	34.6	23.6	16.8
	만 19~24세	22.0	18.7	20.6	9.4
성	남	21.5	24.4	21.4	12.2
	여	20.3	25.0	21.8	14.2
지역규모	대도시	18.1	24.1	19.7	12.1
	중소도시	21.5	22.2	23.9	11.6
	농산어촌	26.3	31.8	21.3	19.5

		직업·진로		자기(인성)계발	
		2020	2017	2020	2017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2.7	31.4	12.9	22.3
	100~200만원 미만	28.6	39.3	28.0	21.8
	200~300만원 미만	22.7	28.0	21.4	12.6
	300~400만원 미만	18.7	24.0	18.3	12.5
	400~500만원 미만	21.3	22.5	22.9	12.6
	500~600만원 미만	19.1	22.4	18.0	10.7
	600만원 이상	22.5	26.4	26.4	16.4
주양육자	초졸 이하	19.0	28.8	8.0	19.7
학력	중졸	17.0	25.2	23.0	14.2
	고졸	21.2	23.9	21.6	12.2
	대졸 이상	20.6	25.4	21.6	14.0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경험에 있는 경우의 비중(%)

건강·보건 관련 활동 경험의 비중은 2014년 37.5%, 2017년 18.1%, 2020년 21.6%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2020년 기준 만 19~24세(19.5%), 여성(20.2%), 대도시 거주(20.0%),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16.4%)이거나 500~600만원 미만(17.7%)인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 보존 활동을 경험한 경우의 비중은 2014년 19.8%, 2017년 15.6%, 2020년 21.1%에 해당하며, 2020년 기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만 19~24세(17.3%), 농산어촌 거주(17.2%),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9.8%),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4.1%)인 경우에 해당한다.

표 II-53 청소년 활동 경험의 변화 : 건강·보건, 환경 보존

		건강·보건		환경 보존	
		2020	2017	2020	2017
전체		21.6	18.1	21.1	15.6
연령	만 9~12세	21.5	24.6	26.8	26.8
	만 13~18세	24.7	24.7	22.8	17.6
	만 19~24세	19.5	10.2	17.3	9.2
성	남	22.9	18.7	20.5	15.0
	여	20.2	17.5	21.8	16.2
지역규모	대도시	20.0	16.8	19.6	15.3
	중소도시	23.5	15.5	24.6	14.3
	농산어촌	21.3	27.3	17.2	19.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4	35.8	9.8	25.6
	100~200만원 미만	27.3	31.7	27.0	17.5
	200~300만원 미만	24.5	23.6	15.4	15.0
	300~400만원 미만	19.4	17.2	17.6	15.3
	400~500만원 미만	22.2	15.6	23.2	14.8
	500~600만원 미만	17.7	14.8	20.4	15.2
	600만원 이상	26.3	20.0	23.0	17.7
주양육자	초졸 이하	21.3	31.8	4.1	16.6
학력	중졸	25.5	30.4	17.0	12.5
	고졸	21.2	16.7	20.3	13.5
	대졸 이상	22.0	18.7	22.2	18.0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

6. 코로나19 이후 단기적 변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이 30.4%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경우(13.4%)의 두 배를 능가한다. 특히, 만 19~24세이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개선 대비 악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악화(9.6%)에 비해 개선(22.1%)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개선되었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 대비 악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만 19~24세, 남성, 중소도시 거주, 월 100~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이 중졸 혹은 초졸 이하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 300~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II-54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과 가족관계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악화(%)	개선(%)	악화(%)	개선(%)
전체		30.4	13.4	9.6	22.1
연령	만 9~12세	22.5	14.7	7.0	22.9
	만 13~18세	26.9	14.6	9.6	22.4
	만 19~24세	36.7	12.0	10.8	21.7
성	남	29.8	13.8	9.9	22.1
	여	31.1	13.1	9.1	22.3
지역규모	대도시	30.1	15.9	8.4	25.9
	중소도시	31.4	9.9	12.1	19.4
	농산어촌	28.9	15.5	7.0	19.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2	17.9	9.6	21.3
	100~200만원 미만	27.6	11.8	11.0	15.5
	200~300만원 미만	23.7	14.1	7.1	16.2

		전반적인 생활		가족관계	
		악화(%)	개선(%)	악화(%)	개선(%)
	300~400만원 미만	34.0	10.5	12.4	18.3
	400~500만원 미만	29.4	11.3	12.0	23.3
	500~600만원 미만	27.2	16.9	7.4	23.6
	600만원 이상	35.1	14.7	6.5	24.2
주양육자	초졸 이하	9.2	11.7	5.8	5.3
학력	중졸	29.0	10.5	6.2	2.9
	고졸	30.1	13.0	11.7	22.6
	대졸 이상	31.0	13.9	8.1	22.5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선이 15.4%로 악화(26.6%)에 비해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속성에 따른 청소년 집단별로 개선 대비 악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21.4%p)이거나 300~400만원 미만(20.3%p), 주양육자의 학력이 중졸(28.1%p) 혹은 초졸 이하(18.3%p)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표 II-5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악화(%)	개선(%)	악화(%)	개선(%)
전체		26.6	15.4	48.4	11.4
연령	만 9~12세	26.9	15.0	47.2	11.8
	만 13~18세	27.1	16.6	47.4	11.9
	만 19~24세	26.2	14.9	49.8	11.0
성	남	26.9	16.2	49.3	10.9
	여	26.4	14.5	47.4	12.1
지역규모	대도시	26.5	16.6	47.3	13.8
	중소도시	27.2	14.6	51.1	9.3
	농산어촌	25.9	14.7	45.2	10.9

		친구관계		학교생활	
		악화(%)	개선(%)	악화(%)	개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1	12.7	48.0	5.7
	100~200만원 미만	21.4	9.8	37.2	10.4
	200~300만원 미만	22.0	11.6	38.1	11.4
	300~400만원 미만	33.3	13.0	51.8	10.7
	400~500만원 미만	29.6	15.2	49.8	12.0
	500~600만원 미만	23.3	17.3	47.2	12.5
	600만원 이상	22.2	17.2	48.9	10.6
주양육자	초졸 이하	22.8	4.5	31.0	2.2
학력	중졸	37.4	9.3	39.5	9.3
	고졸	28.1	15.0	49.2	11.4
	대졸 이상	25.7	16.2	48.8	11.7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학교생활에 있어 개선되었다고 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한 반면에 악화되었다고 답한 경우는 48.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속성별로는 중소도시 거주(개선 9.3%, 악화 51.1%),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개선 5.7%, 악화 48.0%)이거나 300~400만원 미만(개선 10.7%, 악화 51.8%), 주양육자의 학력이 고졸(개선 11.4%, 악화 49.2%)이거나 대졸 이상(개선 11.7%, 악화 48.8%)인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악화의 정도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코로나19 이후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중은 8.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악화되었다고 답한 비중은 43.7%에 이른다. 개선 대비 악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만 19~24세(40.2%p), 중소도시 거주(40.4%p), 월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54.6%p), 주양육자의 학력이 중졸(44.5%p)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표 II-56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취업 전망	
		악화(%)	개선(%)	악화(%)	개선(%)
전체		43.7	8.3	41.6	7.0
연령	만 9~12세	35.9	8.6	27.7	7.4
	만 13~18세	42.3	8.3	38.5	7.2
	만 19~24세	48.4	8.2	50.3	6.8
성	남	44.2	8.3	41.6	7.3
	여	43.1	8.3	41.8	6.8
지역규모	대도시	41.1	9.3	38.8	9.6
	중소도시	46.7	6.3	44.4	3.9
	농산어촌	43.2	10.2	42.7	7.8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8	6.2	51.0	5.4
	100~200만원 미만	33.0	8.5	43.0	4.1
	200~300만원 미만	37.9	9.7	34.1	8.2
	300~400만원 미만	44.7	7.3	41.4	6.0
	400~500만원 미만	43.4	8.4	39.6	5.8
	500~600만원 미만	42.8	9.0	45.2	7.8
	600만원 이상	46.0	7.9	41.5	9.1
주양육자	초졸 이하	42.4	2.3	30.5	4.4
학력	중졸	48.8	4.3	46.4	2.0
	고졸	45.3	8.2	42.4	6.9
	대졸 이상	42.4	8.4	40.6	7.3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청소년의 비중은 7.0%로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비중인 41.6%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만 19~24세에 해당하거나 월 100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가구 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표 II-57 코로나19 이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증가	평균(점)
전체		8.3	46.0	3.4
연령	만 9~12세	9.5	39.9	3.3
	만 13~18세	8.0	48.2	3.5
	만 19~24세	7.8	47.2	3.5
성	남	8.4	46.1	3.4
	여	8.1	45.7	3.4
지역규모	대도시	8.0	44.5	3.4
	중소도시	7.7	47.8	3.5
	농산어촌	9.6	45.1	3.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9	47.7	3.4
	100~200만원 미만	16.0	34.1	3.2
	200~300만원 미만	11.5	36.0	3.3
	300~400만원 미만	6.1	45.0	3.5
	400~500만원 미만	7.8	46.3	3.5
	500~600만원 미만	8.7	46.9	3.4
	600만원 이상	8.1	48.5	3.5
주양육자	초졸 이하	13.6	20.7	3.0
학력	중졸	14.6	50.5	3.5
	고졸	8.7	46.3	3.4
	대졸 이상	7.4	46.3	3.5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5점 척도에 의해 조사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중은 46.0%로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의 비중(8.3%)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변화에서 감소 대비 증가의 상대적 비중은 만 13~18세(40.2%p), 중소도시 거주(40.1%p), 월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40.4%p)에 속하는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증가의 비중이 20.7%로 감소의 비중(13.6%)을 단지 7.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 -58 온라인 수업과 활동에 대한 찬성

		온라인 학교 수업		온라인 청소년 활동	
		비중(%)	평균(점)	비중(%)	평균(점)
전체		51.6	2.5	51.2	2.5
연령	만 9~12세	51.2	2.5	50.7	2.5
	만 13~18세	49.5	2.4	49.8	2.5
	만 19~24세	53.5	2.5	52.3	2.5
성	남	53.9	2.5	52.3	2.5
	여	49.3	2.4	49.9	2.5
지역규모	대도시	50.5	2.4	48.9	2.4
	중소도시	49.1	2.5	50.3	2.5
	농산어촌	60.2	2.6	58.4	2.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1.0	2.4	64.1	2.6
	100~200만원 미만	60.4	2.6	57.5	2.6
	200~300만원 미만	60.4	2.6	62.6	2.7
	300~400만원 미만	49.6	2.5	49.2	2.5
	400~500만원 미만	47.9	2.4	46.4	2.4
	500~600만원 미만	51.0	2.5	52.8	2.5
	600만원 이상	56.8	2.5	53.5	2.5
주양육자	초졸 이하	66.3	2.9	52.6	2.7
학력	중졸	61.5	2.6	55.9	2.5
	고졸	49.5	2.4	48.5	2.4
	대졸 이상	52.6	2.5	52.2	2.5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주: 4점 척도에 의해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를 묻으며, 비중은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함

온라인 학교 수업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은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반대의 비중도 48.3%로 적지 않다. 찬성의 비중이 특히 높은 청소년은 만 19~24세(53.5%), 남성(53.9%), 농산어촌 거주(60.2%), 가구소득이 월 100~300만원 미만(60.4%),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66.3%)인 경우로 나타난다.

온라인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진로탐색 등)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은 51.2%이며,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찬성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제3장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

- 1. 영역별 여건과 과제
- 2. 영역별 정책의제

1. 영역별 여건과 과제

1)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

청소년 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최근에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데이터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변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 자살 충동의 하락, 주관적 건강 평가의 상승,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의 감소와 같이 공통적으로 개선됨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고민거리로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달리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행복감은 최근에 감소하였다.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였다. 비록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감도 함께 증가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개선은 여전히 정책적 과제에 해당한다.

가정생활에서 청소년은 최근에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감소하였다. 더불어, 절대적 수면시간과 걱정 수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로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근에 하락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수업 시간의 감소는 학원수강 시간의 증가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와 선생님이나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은 하락하여,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관계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가생활에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며 운동시간은 감소하였다. 국내 여행 경험은 감소한 반면에 해외 여행 경험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독서는 감소하였으며, 그나마 주로 읽은 책은 만화나 무협지에 해당하였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관람의 빈도 또한 높지 않고 영화와 같은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다.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에 감소하였음에도,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여가시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가장 큰 제약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활동 경험에 있어 문화·예술부문은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며,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자기(인성)계발, 건강·보건, 환경보존 등의 부문들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 이들 활동에 대한 교과과정 반영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수년에 걸친 변화와 달리,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 삶의 단기적 변화는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의 비중이 악화의 비중보다 높을 뿐 전반적인 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취업 전망 등에서 개선보다 악화의 비중이 높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이며 한시적인 영향이긴 하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른

학습효과 저하 및 선생님이나 급우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확립의 기회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전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래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코로나19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으나 사람들의 가치관적 측면에는 성향의 지속성, 질병의 한시적 유행에 대한 기대 등으로 단기간에 걸친 분석에서는 그 변화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더불어, 본 연구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코로나19 전후 변화 중심의 분석은 거시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그들의 일상 전반에 걸친 변화의 추세를 제시할 수는 있어도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 청소년 관련 최근의 연구결과들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미래정책의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김민선(2021)은 23편의 최근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 효과의 크기는 두 요인 모두 중간 정도이지만 긍정적 요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요인의 특성 유형별 효과는 가정생활, 심리정서, 학교생활, 사회생활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에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는 심리정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우·정현숙(2021)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해당 청소년 개인의 특성 가운데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끈기, 학업성취 만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진로 대화빈도가 중요하고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희분 외(2013)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식사 빈도가 이들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경로계수가 보다 큼을 제시한다.

서재욱·정운태(2014)는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 학교환경 변인-심리사회적 학교환경, 학교 유대감, 특별활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개인 능력 변인-학업 성적, 사회성, 진로성숙도-과 가족환경 변인-가족갈등 대처방법, 부모의 교육참여 및 지도감독, 부모의 학대 또는 방임-도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김영수 외(2019)는 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덜 느낄 때와 같은 심신적 건강요인,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근력강화운동을 포함하는 운동요인, 그리고 음주나 흡연 등에 대한 의존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서경현 외(2014)는 고등학생 455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과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으며 우울감과도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김광선·이홍직(2015)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며, 부모와의 동거, 학업성적 등이 유의하게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 중요함을 제시한다.

김봉금·권오용(2021)은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에 있어 부모 과잉양육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며, 과잉양육이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황환·김영환(2017)은 청소년 행복을 주제로 200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고찰한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정서적 특성, 생활 특성, 부모 특성, 학교 특성,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 대한 유대감, 학교 환경, 학업성적,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등이 공통적으로 일관된 영향을 나타냄을 제시한다.

고은경 외(2018)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7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활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내 동아리활동, 문화예술 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진혁·송인한(2021)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7차 자료를 이용하여 4개 영역의 여가활동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한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독서시간이나 친구와 노는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에 게임하는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TV시청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종욱·정구인(2013)은 중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로 우울증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장혜진·윤혜미(2015)는 읍 혹은 면지역의 중학교 3학년 2,40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지역규모가 클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 가족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에 면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애착의 영향이 큼을 제시한다.

송영민·이영진(2011)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여가 만족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부모와 친구 및 물질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되고 이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 만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을 보여준다.

김남정·임영식(2012)은 청소년 14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정도의 중재효과를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함을 제시한다.

이현정 외(2018)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의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삶의 만족도, 학교 학습활동, 교우관계 간 관계를 분석한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에 따른 다음 시점의 학습활동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 이 세 변수들 간 상호 영향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조성희·박소영(2015)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2,21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심리,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서경현 외(2012)는 고등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행복감에 있어 체육활동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역할을 분석한다. 남학생에 한해, 체육에 대한 흥미가 적은 경우 게임중독에 빠져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경험하게 됨을 보여준다.

김보경·조광익(2014)은 인문계 고등학생 220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스러운 감정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긍정 정서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경찬·김옥희(2015)는 고등학생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삶의 만족을 높이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은택 외(2016)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5차년도 자료의 청소년 2,270명 대상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체험활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험활동만족과 참여수준은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 초기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의 변화율에는 체험활동만족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록 외(2015)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행복감이 주요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학교적응, 학업성적, 학습습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손수경 외(2017)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78명의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학교급 내에서 학습활동의 감소가 작거나 교우관계가 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 감소 추세가 둔화됨을 보여 준다.

김희연·탁하연(2020)은 학교급별로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초중고 공통적으로 학교적응과 학교소속감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은 학교만족도, 공동체의식, 부모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부모애착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공동체의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신경 외(2014)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부모 양육행동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부모 양육행동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인 중학교 1학년 2,351명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 비밀관성,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함을 나타낸다.

안지혜 외(2016)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회귀분석과 나무 분석 기법을 사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 우울, 진로 정체감, 주의집중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성효·성운숙(2021)은 청소년 10,503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들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는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과 관계영역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표 III-1 청소년 삶의 만족 관련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결과	정책적 함의
신중우·정현숙 (2021)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2,154명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해당 청소년 개인의 특성 가운데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끈기, 학업성취만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됨	가족 간의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진로 대화빈도가 중요하고,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 생활 만족도가 중요함
배희분 외 (2013)	2010년 청소년의 가족 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 중·고등학생 6,979명	부모와의 식사 빈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 으며, 의사소통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함	청소년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족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이 중요함
서재욱·정윤태 (2014)	2012년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의 〈아동 부가 조사〉, 중·고등학생 512명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 학교환경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동시에 개인능력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직업교육 활성화와 같은 학교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김영수 외 (2019)	2016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중·고등학생 65,528명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심신적 건강요인, 운동요인, 의존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건강, 스트레스, 우울감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개선과 다양한 신체활동이 필요 하며, 음주, 흡연, 약물 의존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결과	정책적 함의
서경현 외 (2014)	고등학생 455명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정서적 음악사용, 체육활동, 인터넷 게임-에 따라 자존감, 우울, 삶의 만족에서 차이를 보임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절제 및 적당한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필요함
김광선·이홍직 (2015)	2012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고등학생 36,889명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학교 요인, 문제행동 요인을 통해 설명하며, 부모와의 동거 및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냄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친구, 교사, 지역사회의 지지는 가족의 역할을 보완할 것임
김봉금·권오용 (2021)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고등학교 1학년 1,964명	부모의 과잉양육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가 부분 매개 영향을 나타냄	청소년기 올바른 자아 정체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지가 필요하며, 학교 중심의 동아리 활동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친밀한 교우관계의 유지가 요구됨
황환·김영환 (2017)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관련 국내 51편의 연구 문헌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 대한 유대감, 학교환경, 학업성적,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등이 공통적으로 일관된 영향을 나타냄	청소년 행복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의 내적 특성의 파악, 행복 개념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의 통합이 필요함
고은경 외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7차 조사	체험활동 가운데 교내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활동, 건강 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에 과학정보활동, 팬덤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 모험 개척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낮춤	일부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결과	정책적 함의
이진혁·송인한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7차 자료	독서시간이나 친구와 노는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에 게임하는 시간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TV시청 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독서습관과 독서환경의 조성,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의 확보,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함
조종욱·정구인 (2013)	중학생 428명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를 통해 중학생의 우울감이 감소함	청소년의 학교스포츠클럽과 같은 자율 체육활동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장혜진·윤혜미 (2015)	읍 혹은 면지역의 중학교 3학년 2,409명	지역규모가 클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 취도, 가족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에 면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애착의 영향이 큼	농촌 청소년의 경우 지역 사회애착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또는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학교는 단순한 학업만이 아니라 복지와 문화가 함께 이뤄져야 함
송영민·이영진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4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부모와 친구 및 물질적 요인 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야기 되고 이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가 만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	여가 체험이 청소년에게 중요함을 부모들이 인식 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봉사활동의 내실 화를 통한 타인에 대한 이타심 형성이 필요함
김남정·임영식 (2012)	청소년 145명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함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활동 및 이를 위한 공적 인프라가 필요함
이현정 외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의 1~6차년도 자료	삶의 만족도, 학교 학습활동, 교우관계 간 영향관계가 존재 하나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에 따른 다음 시점의 학습활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	삶의 만족과 학습활동에 있어 교우관계가 중요하며, 학교생활적응 개념의 재정 립과 이의 다차원성을 통계 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요구됨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결과	정책적 함의
조성희·박소영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학교 1학년 2,216명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심리,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냄	자녀교육에 있어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이 요구되며, 개별상 담과 가족치료 등의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서경현 외 (2012)	고등학생 369명	남학생에 한해,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게임중독 수준이 낮으며 체육에 대한 흥미가 적은 경우 게임중독에 빠져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경험하게 됨	청소년의 체육활동이 스트 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완충작용을 하거나 웰빙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김보경·조광익 (2014)	인문계 고등학생 220명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스러운 감정은 긍정 정서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향상 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지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 년의 긍정 정서를 높이기 위한 지도사 혹은 상담 사가 필요하며, 청소년 스스로 원하는 여가활동을 인지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경찬·김옥희 (2015)	고등학생 250명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적 심리상태와 학교생활 만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삶의 만족을 높이는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	가정, 학교, 사회가 청소년 들로 하여금 능동적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응택 외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3~5차년도 자료, 청소년 2,270명	체험활동만족과 참여수준은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 초기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의 변화 율에는 체험활동만족만 관련이 있음	체험활동 참여수준보다 만족이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결과	정책적 함의
이상록 외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학교 1학년 1~3차년도	청소년의 행복감이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 학교적응, 학업성적, 학습습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청소년기 행복의 제고가 필요 하며, 이는 범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하고 실천적 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손수경 외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78명의 1~6차 년도 자료	학교급 내에서 학습활동의 감소가 작거나 교우관계가 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 감소 추세가 둔 화됨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위한 격려와 학생의 이해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이 필요하고, 교우 관계에 대한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내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김희연·탁하연 (2020)	부산교육종단연구 제2차년도 자료	초중고 공통적으로 학교적 응과 학교소속감이 학교행 복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학교급별로 큰 차이는 없음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토래상담 프로 그램, 동아리, 자치활동 등의 강화가 필요함
김신경 외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1차년도 자료, 중 학교 1학년 2,351명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 비일관성, 과잉간섭이 청소 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함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학교 내 교사 모니터링 및 상담 서비스 활성화와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의 지원이 필요함
안지혜 외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학교 1학년 패 널 3차년도 자료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 정 체감, 주의집중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함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심리적인 부분을 길러 주는 교육활동 및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홍성호·성윤숙 (2021)	청소년 10,503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청소년 삶의 만족에 있어,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과 관계 영역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체감만족도와 부모의 인식 간 괴리가 존재함	학업에서의 주관적 성취감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체계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다 나은 돌봄이 가능 하도록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 유연성 개선이 요구됨

2. 영역별 정책의제

1) 가정생활

비록 최근에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증가하고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나, 한 자녀의 비중이 늘고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양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자율성에 기반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아침식사-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식사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가정 내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최근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나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 향상 혹은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간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고 학생의 이해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의 마련과 주관적 성취감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로 인해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직업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농촌 소재 학교의 학생 복지와 문화 관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여가생활

여가생활 만족도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취미생활과 운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절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체육활동에 있어 참여수준보다 만족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청소년의 잠재력과 재능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이에 대한 공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청소년기 여가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일부 의무적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조사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 전시회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등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화와 같은 특정 유형에 편중된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의 참의미를 청소년이 체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올바른 독서습관 및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 및 학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영역	정책의제
가정생활	- 자녀에 대한 자율성에 기반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 -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의 기회 확대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 -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가정 내 관심 증대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 최근 친구나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하락하였으며, 대인관계 향상 혹은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간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 - 학생의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의 마련과 주관적 성취감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체계의 구축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로 인해 청소년의 진로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 -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의 낙후지역(농촌) 소재 학교의 학생 복지와 문화 관련 여건의 개선
여가생활	-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절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 참여수준이 아닌 만족수준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의 욕구 및 수요가 반영된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청소년의 잠재력과 재능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이에 대한 공적 인프라 확충 - 청소년기 여가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개선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의 참의미를 청소년이 체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내실화 - 올바른 독서습관 및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 내 분위기 조성 과 학교의 기반시설 확충



제4장 결론

- 1. 연구의 요약
- 2.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방안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데이터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에서 만 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청소년 활동 경험 등에서의 변화에 관해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 자살 충동의 하락, 주관적 건강 평가의 상승, 피곤함을 느끼는 비중의 감소가 이뤄져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최근에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민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농산어촌에 거주하거나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였다. 비록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감도 함께 증가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

가정생활에서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또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주양육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최근에 하락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수업시간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교우관계 만족도와 선생님

이나 친구 등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은 하락하였다. 여가생활에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게임 혹은 인터넷 검색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으며 운동시간은 감소하였다. 독서활동은 감소하였으며, 주로 읽은 책도 만화나 무협지에 해당하였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역시 다소 감소하였으며, 관람의 빈도 또한 높지 않고 영화와 같은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다.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에 감소하였음에도,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여가시간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가장 큰 제약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활동 경험에 있어 문화·예술부문은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며,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자기(인성)계발, 건강·보건, 환경보존 등의 부문들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단기적 변화는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의 비중이 악화의 비중보다 높을 뿐 전반적인 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취업 전망 등에서 개선보다 악화의 비중이 높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청소년의 미래 정책의제는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자율성에 기반한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식사 기회를 확대하고 식사시간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가정 내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대인관계 향상 혹은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간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고 학생의 이해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의 마련과 주관적 성취감 제고를 위한 학습평가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낙후 지역 학교의 학생 복지와 문화 관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증가는 학습효과 저하 및 선생님이나 급우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 확립의 기회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역시 필요하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절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잠재력과 재능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이에 대한 공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청소년기 여가 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체험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의무적 참여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근 조사결과는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취미·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등에서 청소년의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봉사활동이 아닌 봉사의 참의미를 청소년이 체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2. 정책제언

1)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청소년의 삶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삶의 여러 측면들-이를테면,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학습활동, 여가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찰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자료가 필요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생산되어야 한다. 비록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청소년의 삶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 관련 다방면의 정책의제 도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시계열적인 분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들 간에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는 행정통계이나 신혼부부의 출산, 경제활동, 주거 및 주택소유, 근로 소득 등에 관한 통계들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 및 학술연구를 위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자료들의 경우 조사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들 간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대신에 연구자들이 자료들 간 매칭 기법을 이용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사응답자인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등에 대한 다양한 속성변수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관리

공공데이터가 청소년 삶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시계열적 지속성과 시의성 있는 변수들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에 있어 과거에는 4점 척도로 측정하던 것을 최근에 11점 척도로 측정함에 따라 수치의 시계열적 변화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난다.

변수의 정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재정의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시계열적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시의성 개선과 연속성 지속 간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3) 분석결과와 정책적 피드백을 위한 체계 구축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의제일지라도 현장에서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효성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청소년이 처한 여건과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공공데이터를 통해 밝히고 개별 문제들에 대한 심층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정책의제를 도출하되, 관련 부처의 담당 부서에서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가 설계되기 위해 연구자와 담당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정책연구의 성과는 결국 정책으로의 반영 여부에 의존하며, 정책의 성과는 그 설계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부터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정책수행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차년도 사업의 수립에 환류되는 체계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은경·전효정·엄성혜·이난희 (2018).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3-144.
- 김광선, 이홍직(2015).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웰니스학회지, 10(2), 71-80.
- 김남정·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민선 (202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기독교교육 정보, 69, 159-188.
- 김보경·조광익 (2014). 청소년의 여가만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정서의 매개 효과 검증. 관광연구저널, 28(11), 67-80.
- 김봉금·권오용 (2021). 과잉양육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우와 교사 관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290-300.
- 김신경·박민경·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영수·윤수인·이홍직 (2019). 건강요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367-378.
- 김희연·탁하연 (2020). 학교급별 학생의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7), 23-45.

- 배희분·옥선화·양경선·Grace H. Chung (2013).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0(4), 125-149.
- 서경현·김은경·조성현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행복감에 대한 체육 활동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5), 115-135.
- 서경현·김혜경·박은선 (2014). 고등학생의 여가활동에 따른 자존감, 우울, 삶의 만족 및 주관적 건강 :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293-316.
- 서재욱·정운태 (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손수경·이현정·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합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 청소년연구, 28(3), 57-88.
- 송영민·이영진 (2011).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써 여가만족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609-634.
- 신종우·정현숙 (2021). 중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인특성과 가족 및 학교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2), 93-111.
- 안지혜·윤유동·임희석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이경찬·김옥희 (2015). 청소년의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내적 심리 상태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 한국웰니스학회지, 10(4), 287-303.
- 이상록·김은경·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응택·곽현·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 학교생활적응과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진혁·송인한 (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고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 이현정·손수경·홍세희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09-238.
- 장혜진·윤혜미 (2015). 지역규모에 따른 농촌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학교 사회복지*, 32, 1-25.
- 조성희·박소영 (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23(4), 801-818.
- 조종욱·정구민 (2013).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1), 413-426.
- 홍성효·성윤숙 (2021).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실증분석. *청소년학연구*, 28(7), 29-47.
- 황환·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Kamerman, S. B., Phipps, S., and Ben-Arieh, A., (2010). *From Child Welfare to Child Well-Being: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Knowledge in the Service of Policy Making*. Springer.
- OECD (2015), "How's life for children?",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Suldo, S., Riley, K., and Shaffer, E., (2006). "Academic correlat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5), 567-582.

사회조사 데이터(2017, 2018, 2019,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4, 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7,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무 룩

부 록

표 A1 사회조사 주요 설문조사 문항

연도	문항
2020	·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2020. 4. 29.~ 5. 12.)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⑤ 해당 없다
	· 귀하는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해당 없다
	·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1) 아침 식사 2) 적정 수면 3) 규칙적 운동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2020. 4. 29.~ 5. 12.)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많이 느꼈다 ② 느낀 편이다 ③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⑤ 해당 없다
2019	·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 귀하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1. TV시청, 2. 문화예술 관람, 3. 문화예술 참여, 4. 스포츠 관람, . . .

* 출처: 사회조사 데이터(2019,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표 A2 생활시간조사 주요 설문조사 문항

연도	문항
2019	· 귀하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귀하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피곤함 ② 조금 피곤함 ③ 거의 피곤하지 않음 ④ 전혀 피곤하지 않음
	·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①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②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③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④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 귀하는 평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출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2019).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표 A3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주요 설문조사 문항

연도	문항
2017	·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지난 1주일 동안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최근 1년(2016. 6. 1 ~ 2017. 5.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입니까?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대회, 과학 실험 등)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등) 4) 자원봉사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2014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데이터(2014, 2017). <https://kosis.kr/search/search.do>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표 A4 사회조사 2018년 표본과 2020년 표본 간 매칭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추정계수	t-값
연령	0.020	3.32
남성	0.044	1.09
동지역 거주	-0.203	-3.46
주택점유형태		
전세	0.055	0.88
보증금 있는 월세	0.082	1.37
보증금 없는 월세	-0.135	-0.78
무상	-0.018	-0.15
주택유형		
아파트	-0.004	-0.07
연립/다세대주택	-0.072	-1.03
기타	-0.095	-0.41
세대구분		
1세대 가구	0.151	0.77
2세대 가구	0.273	2.56
3세대 이상 가구	0.388	3.08
비혈연 가구	0.162	0.67
가구원수		
2인	-0.114	-1.25
3인	-0.035	-0.7
4인 이상	0.000	
가구소득		
1~2백만원 미만	-0.263	-2.59
2~3백만원 미만	-0.123	-1.2
3~4백만원 미만	-0.129	-1.2
4~5백만원 미만	-0.137	-1.25
5~6백만원 미만	0.071	0.62
6백만원 이상	0.163	1.49

	추정계수	t-값
거주지역		
부산	-0.103	-0.97
대구	-0.192	-1.74
인천	0.019	0.17
광주	-0.036	-0.32
대전	-0.045	-0.4
울산	-0.082	-0.68
세종	0.127	1.08
경기	-0.019	-0.22
강원	-0.076	-0.67
충북	-0.082	-0.75
충남	-0.235	-2.19
전북	-0.031	-0.29
전남	-0.111	-0.93
경북	-0.044	-0.4
경남	-0.022	-0.21
제주	-0.038	-0.28
상수항	-0.383	-1.99
표본수	10,146	
2020년 표본	5,049	
Pseudo R ²	0.0072	
Log-likelihood	-6,981.7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8년, 2020년

주 :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세대구분,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에 대한 준거집단은 각각 자가주택, 단독주택, 1인 가구, 1인, 1백만원 미만, 서울에 해당함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미래 정책의 핵심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도출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시계열적·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연령대, 성, 거주지역, 가구소득, 주양육자의 학력 등에 의한 청소년 집단 간 차이에 대해 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들이 있어왔는지에 대해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현황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청소년 미래 정책의제를 제시하였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증거-기반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관리, 분석결과의 정책적 피드백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the Youth Policy Agendas Using Public Data

This study aims to find key areas of future youth policies using public data and to present policy agendas for each area. In particular, public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areas constituting youth lif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future youth policy agendas were created.

The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data that can comprehensively analyze changes in youth life and uncovered which changes it went through using a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In addition, it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differences between youth groups by age group, sex, 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 of main caregivers. It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of analysis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youth life, and suggested future youth policy agendas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s of current status analysis of public data.

This study analyzed various areas such as overall life, family life, and school life, and proposed a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monitoring of changes in youth life, managing public data for evidence-based youth policy-making,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policy feedback of analysis results.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육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
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
(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유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
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평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26-8
979-11-5654-323-7 (세트)

연구보고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26-8
ISBN 979-11-5654-323-7(세트)